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硫安暴騰과 그對策如何

重要肥料統制令實施앞두고

一

肥料의 需給調整과 價格의公正을 圖하야서 肥料製造業者와 農業經營의 改善發達을 期한다는 目的下에 制定된 重要肥料業統制法이 日本內地에 實施된지 僅二個月에 政府當局과 民間製造業者間에 衝突이잇서서 肥料價格統制가 難關에 逢着하야 價格決定을 보지못한結果로 도리어 硫安暴騰의 現象을보여 同法의 缺陷을 暴露하야 重大問題化하게되엿는데 이와同時에 朝鮮에는 肥料統制令의 公布實施를 얼마안두고 이에 呼應하야 公定價格未定을 口實로 製造會社側이 販賣에 消極態度를 取한結果 硫安의 市價暴騰을 招來하야 市中唱은 三圓八十錢으로 四圓臺에 肉迫하게되어 肥料暴騰에 依한 農家의 脅威는 勿論이어니와 肥料統制의 前途에도 多難을 豫想하게되는것은 重大問題로서 注目치 안흘수업다.

二

元來 重要肥料統制法이 肥料種類別로 製造業者組合을 組織케하야 『肥料의製造總數量及 各組合員에對한 그配定의決定 肥料의 販賣價格決定 其他 肥料의 生産又는 販賣에 關한決定』을 할수잇게하엿스나 이決定을 한때에는 命令所定에 依하야 그實施前에 미리 이것을 政府에 屆出하야 承認을 엇게하엿스며 또는 公益上 必要할 境遇에는 政府는 이 決定의 全部又는一部의 變更又는 取消를 할수도잇스며 또는 業者組合이 以上의決定을 하지안는境遇에는 그決定을 命令할수도 잇는 規定이 되어잇지마는 公定價格을 政府가 決定할 權限은 업는것이다. 그러므로 今回에 硫安製造業者組合이 新年度의 賣出價格을 一叺三圓五十錢으로 決定하야 認可申請을하엿는바 市價보담 割高라는 理由로 却下하게되자 組合은 販賣價格에 限하야 全然 協定을 放棄하고 自由販賣하게되엿스므로 市價는 依然 奔騰하야 申請價를 上廻하게되엿스며 組合員이 販賣協定을 하지안는以上 政府로서도 何等 昂騰抑制策이 업스므로 傍觀態度를 取할수밧게 업시된것이다.

三

이에 끈치지안코 政府가 指定한 重要肥料는 現在 硫安石灰窒素, 過燐酸石灰의 三種이므로 萬若 이三種의 原料를 大量으로 含有한 肥料로서도 이名稱이 이三種과 相異하다면 이 統制를 밧지안흘수도 잇는것이니 이러한 모든點을 考慮하면 重要肥料統制法의 缺陷은 一、二에 끈치지안흘뿐외라 結果로써 본다면 同法의施行으로 生産者團體가 完成되어 生産者의 利益을 擁護하게 되엇슬뿐이오 이로 因하야 農民大衆이 입을바 利益이 幾何이지 자못 疑問이라고 하지안흘수 업다. 今後 政府가 이에 對하야 如何한 對策을 講究할지 모르거니와 朝鮮에는 朝鮮의 特殊事情을 加味하엿다는 改築된 重要肥料統制令이 不過數日에 公布實施될터인데 이와 同樣의 意味로 乃至그以上으로 統制의 效果를 注視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四

即 日本內地의 生産者組合形成도 一步前進이엿는데 朝鮮에는 朝窒以外에는 生産者가업서 朝窒이 名實共히 獨占形態를 取하야 日本內地에서 生産者組合이 價格을 決定하야 認可를맛는것과는 달라서 總督府當局과 朝窒間에 協議決定한 價格이 公定價格이 될수잇는데 朝窒이 日本內地統制에 不參加를 聲明하는同時에 『指定肥料』로 高로 硫安市價가 增大될것이다 『公定價格이 低廉하게되면 硫安生産은 減退될것이다』하는等의 宣傳을 盛히하면서 公定價格決定을앞두고 市價를 올리려고努力하는것은 勿論公定價格을 高價로 決定하기爲한 事前工作乃至策動임은 너무도 明白한 事實이니 이와가티 硫安의 市價暴騰이 任意로 左右할수잇다면 肥料統制令의 必要는 무엇이며 또 이것을 公布實施하야 어든바 効果가무엇일가? 이點에잇서서 朝鮮에는 同法을 實施함에 當하야 日本內地以上으로 細心한 注意와 監督이 必要할것이며 또한 公定價格決定에도 諸般事情을 考慮하야 決코 生産者利益擁護에 치우처서 一般消費大衆의 不利를 招致하는일이 잇서서는 안될것이다. 當局의 考慮를 要望하는 所以이다.

國際正義에立脚해 列國과交誼增進

立憲政治에對한所信도披瀝

首相의議會演說要旨

【東京電話同盟】二十一日再開議會劈頭에잇서서 廣田首相의 一般施政方針에 關한 演說은 十九日閣議에서 正式決定되엿는데 其要旨는 左와 如하다

一、皇室의御隆昌을 敬祝

一、帝國의使命이 國力을充實히하야 萬邦協和 共存共榮 世界의 恒久的 平和確立에잇다는것을 述한後

一、이使命을 達成하기爲하야內外情勢를 大觀하고 國策의基調인 國體觀念을 明徵하야皇室을 中心으로 國民一致團結하야 翼贊의 誠을다할것과

一、帝國의 一貫한 外交方針에 言及하야 日滿 日中關係로부터 日獨 日蘇關係에 及하야 對英米等의 外交方針을 述하고 國際正義에 立脚하야 列國과의 交誼를 厚히할것을說하고

一、다음에 昭和十二年度以降의 豫算에 關聯하야 實現을圖할 重要政策即 筆者閣議에서決定한

1、國防充實
2、敎育의刷新改善
3、中央、地方을通한稅制改革
4、國民生活의安定
5、產業의振興과貿易의伸張
6、對滿重要政策確立
7、行政機構整備改善의 七大國策에對하야 具體化된內容을 詳述하고

一、議院制度 選擧制度改善에關하여는 各其調査會에서 어든 答申을 改正하야 法律案으로 提出할것을 述하고 이에 關聯하야

『如何한 事情下에잇서서나 日本의 政治는 憲法政治에 背馳되여서는안되고 萬邦無比의 國體下에서 立憲의皇猷를 國民一致로 其實實에 努力할것이라는』旨의 立憲政治에 對한 首相의 所信을 披瀝하고 最後에 政府의 施政에對한議會의 協贊을 要請하야 諸案의 部門에亘하야 國民生活의安定과 國防의完璧을期함은 刻下의急務임으로 今回의施政計畫은 적어도 이程度로 萬難을排하고 實現시키지안흐면안될것이라고 信한다 政府는 議會의協贊을期待하야 마지안는다는旨를 强調하고 結論할터이다

積極的國交調整과 原料資源問題解決强調

閣議決定된外交方針演說內容

【東京電話同盟】再開議會劈頭에 行할 有田外相의 外交方針演說內容은 十九日閣議에서 決定되엿는데 今回의外交方針演說에잇서서는 日本의外交方針의 轉換으로 指目되는 日獨防共協定의成立을 中心으로한 外交經過의說明에 置重하는同時에 日中交涉에對하여는 共存共榮의 根本方針에基하야 積極的으로 國交調整을 圖할意思가잇다는旨를 說明하고 또통고 盆地條約의 主旨를 擴大하야 植民地原料資源問題의 公正한 解決을 圖할必要가 잇다는것을 强調하고잇는데 其內容은 左와如하다

一、國是의實施
日本의 國是는 東亞의安定確保와 國際正義의 確立에依하야 世界平和와 人類의福祉增進에 貢獻함에잇슴으로 政府는 其實現에 銳意努力하고잇다

二、日獨防共協定
現在의 國際情勢는 極히不安하다 特히 콤인테른의 活動으로 益險惡化한此際 日獨防共協定을 締結한것은 極히緊要한것이다 帝國은 共產主義運動에對하야 協力防止에努力하여왓스나 隣邦中國의 赤化情勢에 對하여는 憂慮할만한點이 不少하엿더러 再昨年第七回 콤인테른大會는 其目標를 日獨兩國에 두기로決定하고 人民戰線結成이라는 新方針을 採하고잇다 따라政府는 共國際防衛措置를 講究하기爲하야 日獨防共協定을 締結한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國體擁護와 東亞安定의 必要에 基한것으로 萬邦共和에依한 各國과의 親善方針에는 變함이업다

三、日滿關係
日滿兩國民의 融和와 親善과의 不可分關係强化에 努力하고잇는바 이때문에 昨年末治外法權撤廢 滿鐵附屬地行政權의 調整을 目的으로 條約을 締結하얏다

四、日中關係
對中三大原則에 基하야 日中國交調整交涉을 進捗시키고잇든바 昨年八月 成都事件其後의 不祥事件으로 其進行은 阻害되엿다 此等事件은 排日政策에 依한것임으로 南京政府에 對하야 事件解決에 對하야 必要한 諸懸案의 解決交涉을 開始하엿다 그리고中國側의 態度에 鑑하야 함부로 時日을 遷延할時는 事態를 紛糾케할것임으로 昨年十二月一致點을 實行하기를 要求하고 마침내 成都北海兩事件을 解決하엿다 現在交涉은 停頓되어잇스나 日中共存共榮의 根本方針에 基하야 兩國國交調整에 努力하고잇다 西安事件으로 張學良의 容共抗日政策이 具體化하려함으로 帝國政府로서는 中國政情의 推移를 重視하고잇다

五、對蘇關係
漁業條約은 蘇聯側의 調印延期申告로 調印되지못하엿스나 暫定協定의 形式으로 今年度의 漁業에는 何等支障을 招來치 안흘것이다 滿蘇國境委員會設置交涉도 進展되여 거의 意見一致되여잇다 그리고 蘇聯側이 國境方面에 過大한 軍備를 [illegible]하고도 日本을 [illegible]하고 잇스나 蘇聯側은 크게 反省하지안흐면 안된다 日本側으로서는 [illegible] 增進에 努力할方針이다

七、對英米關係
英國과는 相互立場을 諒解하고 親善關係强化에 努力하고 잇다 米國과의關係는 日本의平和政策을 米國側이 認定하엿기때문에 東亞의事態는 자못 良好하게되엿스나 益益其親善增進에 努力할 方針이다 그리고 軍縮條約은 不幸히 一切 消滅되엿스나 日本의 軍縮政策에는 何等變更이업고 公正妥當한 軍縮條約이 成立되여 國際平和에 寄與하기를 希望한다

八、對伊關係
我國은 에디오피아公使館을 廢止하고 伊太利國은 駐滿總領事館을 新設하엿다 이것으로 親善關係는 益益 增進되리라고 信한다

九、南洋政策
我國의 南洋發展에 對하여는 여러가지 誤解도잇스나 日本側으로서는 經濟關係의 增進外에는 他意가업고 政治的進出과 如한것은 考慮치안는다

十、十一(略)

十二、結論
以上의諸政策實現에는 國民의 支援이업소면 안된다 이에對하야 國民一致의 協力을期待한다

政戰氣分昂揚!

兩黨反政府色彩濃厚

【東京電話同盟】再開議會는 마침내 明日에 迫到되엿스므로 政府黨이모도 朝野攻防陣營의各各準備를整頓하고 議會再開를기다리고잇다 即政府는 十八、十九兩日에亘하야 閣議를열고 首相、藏相、外相의 議會演說草稿 및 再開劈頭議會에提出할 重要法案多數를 決定하고一方政民兩黨에서는 二十日各各黨大會를열고 再開議會에 臨할陣容을 整備하고 氣勢를 올리고잇는데 政民兩黨도 모다顯著히 反政府的色彩를 濃厚히하고잇스며 또社大國同等의 小會派도 二十日議員總會를 열기로되엿스며 昭和會는 이에압서서 十九日午後二時부터 議員總會를열고 陣容을整頓하고 議會가 再開되는同時에 風雲의急을 告하야 政戰氣分이 高潮하고잇다

首相兩總裁訪問 正式으로中止

【東京電話同盟】政府는 議會再開直前 町田民政 鈴木政友兩黨總裁를 訪問하고 再開議會에臨할 政府의所信을 披瀝하야 兩黨의支持를 懇請할豫定이엿스나 兩黨이 모두 內部情勢가 極히 複雜微妙하고 政府部內에 强硬意見이擡頭되여 形式的訪問에反對를 主唱하는이가잇슴으로 首相의 兩黨總裁訪問은 마침내中止하기로 十九日決定하엿다 따라 政府 政黨은 相互對立的感情下에 議會에 臨하기로되엿다

陝西省居住外人 全部無事히退去

【上海十九日發同盟】陝西省에居住하는 外國人救出을爲하야 外交部는 十八日情報司 第二科長 王光氏를 西安에 派遣하엿든바 王氏는 米國大使館員及 洛陽에서 同道한 英米兩國武官과함께 十八日夕刻西安에 到着하엿든바 西安飛行場에서 居住外人全部가 이미 十八日午前十時 自動車로 潼關에 向하야 出發한 旨를聞知하엿슴으로 即時洛陽으로 歸還하엿다 其後 該外人一行 七十五名은 모다 無事히 同夕刻 潼關에 到着하야 隴海線으로 十九日 午後三時 洛陽에 到着할 旨의 通告가 잇섯슴으로 王氏는 一行의 到着을 보아 歸京하야 復命하기로 되엿다 이리하야 西安의 情勢가 惡化되매 伴하야 가장 念慮되든 外人全部가 安全히 退却하엿슴으로中央은 時局이 進展되매따라 何時에나 西安爆擊을 敢行할수잇게되엿다

米穀會社法案決定

【東京電話同盟】米穀株式會社法案을 審議할 米穀配給調整協議會第一部會는 十九日午後一時부터 深川米穀利用研究所에서 開催되여 農林、商工兩省關係官(大藏司法欠席)以下民間 特別委員出席으로 爲先佐藤部長으로부터 特別委員會의 經過를 報告한後別項과如히 日米米穀株式會社法案要綱을提示하야 詳細說明하야承認한後 左의二點에對하야 今後關係省間에 協議키로하고 同四時散會하엿다

一、現在의 米穀取引所及 正米市場營業財團으로 新會社에서 買收할 範圍及評價方法및 米穀取引所 取引員에對하야 交付할賠償手當

二、本案實施에關한 政府의財源關係

十一警官에게 功勞記章授與

警察官最高의 榮譽인 警察官功勞記章은 十九日警務局에서左記의 十一氏에게 授與할旨를 發表하엿다

元全南道巡査部長(麗光署) 故李宗天
故白完洙
故川口正男
(右三氏는 十一年八月水害에際하야 人命을救助하고 殉職을遂하엿다)

平北道巡査部長(碧潼署) 後藤敏馬
(十一年十月決死隊로 匪賊討伐에 拔群의功勞가有하다)

平北道巡査部長(渭原署) 故吉原
鄭敏節
(十一年九月突然匪襲에 勇戰하야 吉原巡査는戰死 鄭巡査는重傷을 負하엿다)

吉田勇
矢次玖利
藤澤興次郎
吳炳旭
金寶熙
(十一年十二月匪團의 大擧襲來에際하야勇敢히 敵을擊退하엿다)

農振功勞者 紀元節에表彰

總督府에서는 來二月十一日紀元의佳節을 卜하야 農村振興功勞者七十八名을 表彰하기로되어 目下 彼表彰者를 詮衡中인데其內譯은 一道에 指導者二名 農村中堅人物二名 農家二戶(各一名)로되엿다

印度洋을건느며

⑦ 歐洲가는길에

白麟濟

칸디行

彼南을떠나 馬拉加海峽을 지나는동안 左右舷에 陸地를 바라보면서 航行一夜를지나면 배는 『뻥갈灣』에 다다라 一望無際한 大洋에나서 飛魚의 무리떼로 날뛰는것이오 새한마리볼수업는 熱航海四晝夜에 日하는 西航을계속하야 印度南端의一大島 錫蘭에다다라 오래간만에陸地를 바라보게되엿다.

지난二十六日午後에 彼南을出帆하지 五日째되는三十日아츰天氣는 淸明하고 朝日이鮮陽한데 어느듯右舷에 綠陰에 싸인 巨島이나타낫스니 이것이錫蘭島다 船員이 指稱하는 高山으로海拔七千三百呎에及하는有名한佛足山이라하며山頂에一巨岩이잇서 큰足形의 凹處가 생긴것을 佛敎徒가 釋迦의 足跡이라하야 每日巡禮의 徒가 끈칠사이업다거니와 이것이 생긴이름이라합니다 배는 錫蘭의 東海岸으로 가까히드러가 이大陸을 右舷에끼고 航行約一時間後에 錫蘭島의 南端인 『콜롬보』港에다앗다. 때는 午前八時 午後五時出帆까지의 七八時間을 利用하야 名所觀光을 할수잇스되 『콜롬보』市及附近의數個所를 悠悠히 巡遊할수잇는一案과 奔走히 멀버 이까지와던 機會에 島內奧地요 島의舊都인 『칸디』行을 斷行하야서 印度의眞面目을 一瞥이라도 하고가자는이에게는 좀遠行이나 自動車를利用하야 往復할수잇는 兩案中의하나를 取하지아니하면 안되는 形勢다 우리『멤버』一行六人은前夜부터 累累調査한結果 第二案에依하야 『칸디』行을 敢行하기로하얏다.

이제『칸디』紀行을 쓰기前에 먼저 錫蘭에對한 地理的準備知識을 簡單히 만드러둘 必要가잇슬줄안다. 우리가 世界地理배우던 記憶으로 머리에 남아잇는錫蘭島는 一少島가印度의南端에 잇섯다. 勿論印度의廣大한데 비하면 錫蘭가튼 一小島가 잇거나말거나 別로重要한 意味가 잇슬것갓지도안타 그럼으로 그記憶도아조 어섬프레한 이저버리다남은 그림자가는 것에不過함이 普通인듯하다 그러나 콜롬보寄港前日부터 食堂아페 걸어노흔 錫蘭大地圖를보고 또그여며봇치노흔 名所案內書를 또더보고나서야 이섬에對한 認識이 一新하야젓다 錫蘭島는 波羅門敎徒가 梵語로 Lanka(랑카)라 불럿스니 『光輝의地』란 뜻이오 佛敎徒는 『印度의人間에빗나는眞珠』란 美辭로써 불럿고 또往古마케도니아人間에는 따부로-옌이라고도하며 『紅蓮華의聖地』로 알려잇섯고, 亞剌比亞人이 Serendip(세렌디브)라 불럿스니 印度大陸으로부터 侵入移動한 아리안族의 一族 하리-쓰가(Sinhala)신할라 即 『猛獅子의安息所』라 부른 일홈을 訛傳한것이엇고 그後 葡萄牙人이 來占한뒤론 세렌디브를 세일란 Ceilan이라부르더니 다음和蘭의手中에들자 Ceylan이되고 更히英人의勢力이及함에이르러 Ceylon세이론이란 只今부르는 일홈이되얏다하니 이名稱의 變遷만보아도 그歷史的運命을짐작하겟고 또自古로 여러民族의 文化가興替되여온 不確綠한存在임을 알아보겟다 面積으로말하야도 一萬四千七百平方哩이니 日本九州보다도 큰大陸이다 그全形이 망고나무닢가티되엿다 周圍에 平原低地가相當히잇고 中央大部가 山地高原帶로되야 氣候도 低地는 熱帶的 高溫이나 高地는 쳥신 凉氣가 만허 住居에 適하고 産物로 말하야도 黑鉛, 錫等의 鑛産도 相當하려니와 世界的으로 有名한 本島紅茶는 輸出品의 祖宗이오 그外에 椰子油,『코프라』護謨等이 主産物이다 本島의住民은實로 多種多樣이되얏나니 土蕃인 (Vidda)가 山林中에잇서가장 未開한野蕃이고 Sinhales란 大陸으로부터 征服侵入한 『아리안族이니 實로 當地最初의 植民으로 只今에도 가장 多하야全人口의 大部를占하얏고 그外 南印度에서 移住한 (Tamil) 人、亞剌比亞에서 移住한 Moor人、南洋에서 건너온 馬來人이잇고 또和蘭人의 子孫인 混血者도相當히만타 只今이들을支配하고잇는 英人은 全島를通하야 一萬을不出하는 少數에不過하다하며 言語는 英語가 普及되얏고 宗敎는 佛敎가 最盛함은 勿論이며 政治組織은 香港과가티 印度政府와는 何等의關聯이업는 一個獨立한英國直轄植民地다 『콜롬보』港은政廳所在地일뿐아니라印度洋貿易의 要衝인地點이며 天然良港이엇서 英人이此地에 巨億의 財貨와 十數年의 時日을費하야 大規模의防波堤를 築造하야만든人爲的要港임이 그重要性을 알게한다

이제우리가 가랴는『칸디』는『콜롬보』에서 相距七十二哩本島의大略中央高地에 位한一八一五年英軍의게征服되기까지 約二百年間島酋長의居城이엇던 舊都인데 幽邃山間、海拔二千呎의 高地라 氣溫도 쳥신갓고 景致도本島第一의 仙境이라일컷는 곳이니自動車로 迷走三時間半을 要한다 沿路 英國式新式道路는 約一時半餘를 椰子와 檳榔等의 老木街路樹로 作陰된 平原低地를 疾走하는데 路上에繁往頻來하는 印度人의特有한 半月形草蓋로덥힌 그놈만은牛車와 路邊의茅屋土窟에 赤裸體土人들의 氣力업시 慢慢하고잇는 異風景이 눈을 끌엇스며 靑草稻田의 兩岸에빗나고잇는것과 茶園護謨圃가 鬱蒼하게 茂盛하얏슴이 風景으로도 絶佳하려니와 往時엔만氣溫、多雨土味肥沃한天惠豐饒한 程度가難可測할것이다.

鐵走約一時間에 車는漸漸山地로들기始作하야 구비마다 峰谷마다 初來客의耳目을 새롭게하는새로운景致를 展開하며 運轉手의氣轉으로 時時로徐行或停車를 하여가며 說明을試하는 것도 그럴듯하얏다 그中에도巨象이 木材石材를 이빨에달아매고 徐步로運搬하는것이 印度다운奇觀이엇다 『칸디』에達하기四哩前에 熱帶地植物을 具存한것과 大規模로 整頓되기로 有名한『페라데니야』(Peradeniya)植物園이잇스니 園內에車를모라 七八丈이넘는 파이롱가리잇한棕櫚나무와 亞木이 耳目을 놀래게하는樣 然한道路를도라 象群이潛水午睡하고잇는 내가에이르러 下車暫觀하며 長路의疲勞를 쉬이고 午後一時에칸디市內에 到着하얏다

市는 豫想에反하야 古邑蒼然한 古建築은 別로 눈에띠지 안헛고 亦是 新設洋式이나 洋式影響바든 印度人建物이 大部分인데 아마 不過數千으로 보이는 英人과高貴參者의 避暑都市이기보단山間小都이다 市一隅에 湖水를 끼고 湖邊山間에 佛陀의齒를安置하얏기로 有名한古刹이잇다 伽藍의 規模는 支那人의손에된彼南의 極樂寺에 멀리밋지못할것이오 建築의技工으로 印度의高度古代文明의片鱗도 보지못한一介古刹에 不過한 듯을알수잇다 土人僧侶의 案內說明에依하면 四百年前의 建築이라하나 機構의貧弱함과 裝置의 幼稚함이 蠻人의所作임을 不免하게보인다 參詣者가 黑人參禮者들이 일홈모를 草花를 단으로 佛像압에 싸고 伏坐而拜하는양과 昨夜가滿月이어서 數百燈火로 徹夜를 明門하고 致誠을 하얏노라하며 聖書의多數함을 指示自矜하는樣이 可憐해보이엇다 要컨대佛陀가 有眼而視하면 寒心莫及할 光景이더라

湖畔洋館에서 英式午餐을 먹고 一路疾走歸路에 올라 車中三時間餘를 或睡或醒에 이러한생각하다가 午後四時지나 歸船하니 겨우 出帆三十分前에 맛첫더라 椰子나무街路樹 그늘지고 곳에곳마다 잠자고 누엇스니 洋服입은外國손님이 탄自動車임을 手고 보더라

一九三六、十二月一日 於印度洋船中

夕刊後市 十九日

◆株◆

	後引	高値	低値
動取	八四五〇	八四五〇	八四二〇
朝新	一四一〇	一四四〇	一四一〇
鐘新	一三〇六〇	一三一〇〇	一二九一〇
大新	九五四〇	九六四〇	九五四〇
東新	一五八二〇	一五六六〇	一五八二〇
日産	八二五〇	八二〇〇	八二五〇
同新	—	一四一〇	一三八〇
日鉱	—	—	—
安取	—	—	—
朝石	—	三九〇〇	三七六〇
鋼管	—	—	—
日魯	—	—	—
同新	—	—	—
商船新	—	—	—

◆大阪 短期 氣配◆
大新 九五〇〇(不變)
鐘新 一三一〇〇(一〇低)
日産 八二五〇(不變)
東新 一五八五〇(一〇高)

◆橫濱 生糸 後引◆
當限九一三〇〇 先限八九八〇〇

◆名古屋 人絹 後引◆
當限八六一〇 先限八二八〇

今日本紙朝刊 夕刊合十六面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年藥
百補丸
一劑十円 平和堂 京城堅志町

信用잇는最高會社의紹介잇는大確業
조흔家庭工業
第一의工業은 日常生活에 우리의 必要한物品을 製造하는 것이다 ...
第二의 家庭工業은 ...
資本 參拾萬圓
株式會社
內外貿易 大阪市 ...

山羊乳
キング山羊牧場
京城東小門外城北町
電話光化門(3)三〇三五番
振替口座京城三〇八番

好職業
大阪天王寺區寺田町 昭榮商會

分讓
果樹苗木
京城府外纛島
久次米園藝場

金儲
大阪市西淀川區浦江中二
石槿機械製作所
電話福島四二二六番

カメヤ旗店
旗
京城黃金町一丁目一八
カタログ進呈

副業또本業에
千代田商店
大阪市西區本田通一
電話西七三九八番

獨學青少年諸君!!
無學は男の恥
自宅을學校로 不過一年에 힘안드리고 全科卒業!
于先中學卒業으로
最新 中學講義
他處보다도會費가싸고
他處보다도알기가쉽고
他處보다도卒業이빨러
◇小學校 卒業하는 者 年數十萬名이되는데 不幸히도家庭形便으로上級學校에 갈수업서 바로 實社會에나서는 사람이나家業을 돕는사람이泰山갓다 이가트 有爲한靑年이小學校以上의工夫를 繼續치못하고 虛送歲月을하는것은 當事者만이아니라 躍進하는朝鮮에 羞恥다
◇今日의 實社會에 서成功하려면 不充分하다 複雜한社會의 第一線에서서 活動하려면은 어떠케하든지 中學程度의 學問이 업스면決코大成할수 업슬뿐아니라 將來의生活까지도 不安하게 된다
지금入學하면 今年中에는힘안드리고卒業할수잇다
◇그러나 家庭形便으로中學校에 通學지못하며 希望에다면서도煩悶하는사람은 어떠케할가 거기에는 本校의 最新中學講義録으로工夫함이 第一便하다
中學講義錄은世上에만키는하나 不過一個年의 特急스피-드로쉽사리 자미잇게 卒業할수잇는것은 이最新中學講義錄外에는 또업다
◇入會하면은 每月二冊식 講義錄을送本하고 따로히趣味가만흔機關雜誌와 有益한參考書를 一冊씩送本함으로 每月四冊씩 配本이되며 自宅에서家事의 餘暇와 朝夕의工夫로 不過一年동안에 中學全科를卒業할수잇다 이러한新式通信敎授法은 스피-드時代에다시업는理想的組織이다

◇學科目은 다음과갓다
▲修身 ▲英語 ▲幾何 ▲公民科 ▲英文法 ▲三角 ▲國文 ▲英作文 ▲博物 ▲漢文 ▲英習字 ▲物理 ▲作文 ▲歷史 ▲化學 ▲習字 ▲地理 ▲農業 ▲文法 ▲算術 ▲工業 ▲圖畫 ▲代數 ▲體育
即、中學校正科를 全部網羅하야 挿畫를만히너어코 講義는親切平易를第一로, 모도滋味잇고、누구나알기쉬웁게도 工夫할수잇스며 더욱이質問이잇스면 몇번이라도알수잇게 先生이講義錄안코모便으로明快하게責任回答한다
每月 講義錄…二冊 參考書…一冊 機關誌…一冊 合計四冊式本配하고 其他各種
大特典 大特典付로學資不過一個月一圓
◇大特典 會員에게는右에表示한대로 獨學諸君을爲한奉仕的廉價이아니고 무엇이라더욱이獎金金 英和辭典、漢和辭典의 贈呈日曜無料講習等을 비롯하야 他處에서 따를수업는 各種의大特典이다
新·學·期·開·始
內·容·大·刷·新
會·員·大·募·集
이제昭和十二年度新學期開始함을 따라지금獨學諸君의 機會이며 少年은 늙기쉬우니 後悔하지말고 工夫는 지금부터 해야만한다
그러면 諸君은 今年에꼭이完備된 理想的 最新中學講義錄에 入會하야 將來立身成功活躍의基礎를싸하라
見本一冊進呈
葉書로申込次第見本規則 一冊無代進呈 (棧書幾冊도申込하시오) 말고지금곳申込하여라
東京市牛込區台町
大日本通信中學校

ワカゲキ
國際ニュース
東日大每
大人五〇錢 小人三〇錢

二十日부터
劇團靑春座公演第四週特別週間
悲劇『남자업는자식들』四幕五場
林仙圭作
名篇『사랑에울고돈에속고』姉妹篇
…어머니가가지생이엿기때문에비가잇서도私生兒가되지아니하면아니되게될가?運命의작난거리가되여곳까지悲哀에우는人生轉落을如實히描寫한作品으로 凜然前作『사랑에속고돈에울고』를 凌駕할만한作者林仙圭씨가最近心血를다한力作
中傑作!
南宮春作 喜劇『深深山村의白도라지』一幕
處女地에피여잇는도라지꼿-누가그곳에眞春을알어주지안으나深深山村의白도라지야말로純朴하고淸雅하다 一亦是人間社會에도잇는이야기이니우수웁고도意味잇는喜劇!
特別豫告 雲芳作『漢江물이푸르른것만』三幕 林仙圭作『잇지못할사랑』三幕
東洋劇場

廿日封切(七日間)
每日三回 十時半一時半六時半
豪華特別大興行
세가지映畫가, 全部名畫입니다,
時間을꼭맛처주십시요
◆京城撮影所超特作映畫(日本版)
原作 李泰俊先生
脚色 監督 羅雲奎
撮影 編輯 李明雨
朝鮮語 全發聲 五夢女
主演 盧載信、尹逢春、金漢一
稀有의佳作映畫의 滅亡되 羅雲奎李氏一生의力作
◆W、G、M、空前의超豪華版
『라인포-엘、마나로이
루이스레이너 主演
『마린블』其他
『星지-그필드』(前篇)
質과量으로보아 最高을超越하는 世界映畫最高의金字塔이요 라디오社超特作映畫
◆RKO라디오社超特作映畫
『리알포-엘 主演
一對二
團成社

◇一月十九日부터每日晝夜二回 낫一時 밤七時始映
新富座 桃花劇場專屬劇團
東劇座 大公演
朝鮮劇界第一線에精銳軍大集結劇界最高水準을걷는代表的大一座!!
◇金健作
文藝名編 女賊 全二幕四場
出 申銀鳳、韓一松、朴 李素然、卞基鍾、河文鎬
◇文藝部編
喜劇 뻠맛는사내 全一幕
新富座

米國マスコット映畫社超特作
ジャツクマルホール主演
空中肉彈隊
大都映畫特作連續大活劇
鳥人ハヤブサ・ヒデト大活躍
無敵亂鬪王
第四 第五篇全十二卷
十八日ヨリ二十日マデ三日間 階下席 十錢均一
毎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永樂町
中央館

嫌疑쓴梨專生이 松下에結項自殺

暴白의鍵은???

先生에게追窮當하고授業中行方감추어

敎養處女의輕薄한最後

사진은 문창숙양

대한(大寒)압날에 한바눈이 분분히 내리고잇는 시내리화녀자전문학교(梨花專門學校)뒷산에서 원흔이 송이송이 싸혀잇는 솔나무가지에 꼿과가티 고흔그학교학생이 나는동무도들 쓰일이업다는비통한 유서를남기고 목을매여죽은사건이 발생하엿다 그가바든 혐의가 옳든 그르던 종교학교의녀학생이 자살까지를 하지안호면 안되기된 그러면에는신변을싸고도는 어떠한 착잡한 관게가 잇지안홀가？무엇이 그녀자를 꼭죽엄의 길로 가지아니치못하게하엿든가？ 학생자녀들은일반가 경우들은 일반교육게에 일대파문과 경종을울리고잇다

십구일 오후한시경에 시내대현정(大峴町)에잇는 리화전문학교 문과일년급의 교실안 책상우에 그날아츰도 수업을바든 문창숙(文昌淑)(二一)이라는 학생이 그와한방에잇든 긔숙사학생 일동을 비롯하야 사감(舍監)선생님 학년 한우일등 문과과장 (文科科長)에게 보내는 죽는다는글 를겨운 유서 네통을써노코 어데론지 행방이 살아지고말엇다 이유서를 발견한 학생들이 선생에게 달려가서 이사실을 알리게되자 선생들도 대경실색하야 곳 선생 학생 소사등이 총동원되여 혹시 죽기전에 차저낼수나 업슬가하야 부근솔밧을 사사치 뒤지기 시작하엿다 약 한시간후에야 겨우 그학교소사가 학교뒷산솔나무가지에 끈으로 목을매여죽어잇는 것을 발견하엿다 이리하야 곳학교 교의가 달려와서 응급치료를하엿스나 회생되지안하서 할수업시 시내의전(醫專)병원으로 데려다가 여러가지로 힘을 다써보앗스나 드듸여 이날오후네시이십분경에 절명되고말엇다

金錢出納에서 嫌疑를밧기까지

潔白을呼訴한遺書四通

문창숙이가 죽엄을차즌 그원인에대하야 착잡하고 미묘한이야기가 숨어잇다 그는 제주읍내(濟州邑內) 문수천(文守千)씨의장녀로서 재작년봄에 시내진명녀자고보(進明女高普)를 조흔성적으로 졸업한후 리화전문문과에 입학하야 그기숙사에 입사한후 공부를하게되엿는바 원래 성격도 얌전하고 미듬성잇슬뿐아니라 일반의 신용이두터웟기때문에 그기숙사 금전출납을 마터보는것으로 다소의학비보조를 입고잇섯다고한다 그런데 지난학기에가튼 기숙생인주덕순(朱德順)이라는 학생이 돈사십원을 회게인그에게맷겻다가 이십원은차저쓰고 나머지 이십원은 그대로두어섯는데 뜻박게그돈마저주덕순이가 차저쓴것으로 장부에 기록되여 잇는것이 탄로되엿다 그 필적이 문창숙이의 것이틀림업서 보이게되엿다 그러나 문창숙이는 자기가쓴일이업다고 말하게되고 주덕순역시 차저쓴일이 업다고하게 되고보니 이문제가버려저서 드디어 사감선생의 귀에까지들어가게되엿다 그러든것이 이번새학기에 들어가서 지난십오일부인는 사감선생에게로 시내일부인이찍힌 편지한장이 들어왓는데 그편지내용인즉 주덕순이의돈이십원을 차자쓴것은 문창숙이가아니고 다른사람이니 문창숙이는 전연무명을쓰고 잇는것이라고하엿다 이리하야 기숙사에서도십팔일에는 전학생에게 문창숙이는 전연혐의가 업다는것을 선생이 발하여주어섯다 그러나학교에서 그편지필적을 자세히조사하여 본결과 그것역시 문창숙이의 필적과가튼것가타서 십구일오전열시경에 문과과장김상용(金尙鎔)씨가 한시간 교수를밧고 나온창숙이를 불러다노코 만약에 네가그런짓을 하엿스면 큰일이아니니까 나한테만 바른대로 말해버려라 돈은 선생님이채워버리면 고만이아니냐고 하엿더니 그러면 그대답은 오후한시에 해드리겟다고 하고서나가버리게되엿다 이리하야 전기와가티 편지에 만년필로 유서네통을 써노코 자살을하게된것이다 그유서네통에는 모두자기는 죄가업다는뜻을 써잇섯스며 기숙사에서한방에잇던동모에게쓴유서에는다음과가튼유서가적혀잇섯다 나는 전연죄가업다 내가 가치잇느라고 방을 더럽게해두어서 미안하다 내가죽고 나거던 나의 시체는 의전병원에잇는 우리오빠에게 전해다고 부대부대이들은 조흔사람이 되여 주기바란다

『調査途中에 이러케된일』 金活蘭副校長談

이사건에대하야 리화전문학교 부교장인 김활란(金活蘭)씨는 다음과가티 말한다 그학생은 평소에는 공부나조행이나 보통이엿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매우미덥직하야서 기숙사금전출납을 맷겻던것입니다 돈이십원의 사건에대하야는 신학기에들어서 학교에서 정식으로 조사하게되엿는데 과연문창숙이가 차자썻는지 혹은 그러치안핫는지는 아직확실히 나타나지안하서 조사도중에 잇섯든것입니다 이러케 큰일이 저질려질줄이야 천만뜻박입니다

『그애가이러케 되다니요……』 오빠 文昌鳳氏談

문창숙양의 오빠는 세분이나 되는데 모다 상당한 교육을밧고잇는 사람들로서 그큰오빠인 시내의전(醫專)병원에 약제사로 근무하고잇는 문창봉(文昌鳳)(二?)씨는의전병원에서양의시체여페 부터안저 비창한 얼굴로다음과가티말한다 그애가 이러케되다니요 당해버린일이니 어떠케 하겟습니까 평소에별로히 비관하는피색도 업섯고 학비도 곤난하지안핫습니다 운운

『정말불상해 못견디겟서요』 文孃의學友談

문창숙양의 학급동무는눈물에여승 문답동무로서 다음과가티말한다 그의 어제는희문학교다닌다는 날동생과함께 외출을나가서시루피 도사먹고 또무엇도사먹고 참자미잇게놀고왓다고 대단쾌활하게 놀고잇더니 그만죽어버렷서요 정말불상해 못견듸겟서요…운운

(사진은 取引所의풍경)

生活戰線의赤信號 物價高騰의明暗相 ❷

綿絲暴騰의餘勢로 깜아케올은株式市勢

이동에수난사람은明治町大監A·B·C

典執物로도『금부치』가第一!

이번 물가고등의 진원지(震源地)가된 대판삼품(大阪三品) 시장은 그야말로 야단법석이엇스니 원료인 면화수입을 마음대로 못하게되면 폭등되겟다고 가수요(假需要)가 이러낫다 측지금당장소용되는것은 아니지만 아프로도 오르겟스니 미리사두자는 인기(人氣)로되어 면사(綿絲)시세가우선 폭발되고 년말부터 이면사폭발로 갑작이 수난사람들이 꿈싹달삭안코잇던 주식(株式)에 손을대이어 주식시세까지 폭등시키엇는데 그것이 이달초열흘내외에 또다시 평장한 폭등시세를 내이게된것이다

제일수난사람들은 면사를산사람들로 대판은 원악일본에서 제일가는 장도시이라장사숫에 이숙빠른 친구들이기때문에 돈벼락마진 사람이적지안코 조선도 경성남대문통등지에잇든 일본내지인의 큰면사포장사들은 대판과 련락이 그전부터 긴밀하얏던관계로 이사품에 멧만원이상의큰돈을 잡은사람이 잇스나 조선인측으로 말하면 대판쥐인소관계로든 그리상관이 업고 또원체 창졸지간에 폭등폭락이연접퍼 낫기때문에맛처손을대지못한형편이엇다 간단히말하면 이번면사시세파란에 조선인은 부자된사람도업고닷친사람도업섯다한다

★

그다음 주식시장으로말하면통칭 명치정 주식시장이라는조(?)[illegible]시장[illegible]비를마젓다 작년이월에돌발한 동경사건이래 시세가떠러지기만하고그후다시올랏스나 한진갈지난 늦은이가티 기운을쓰지못하던 동신(新)주가 일백삼사십원에서 갈팡질팡하든 그대로 신년들마시하게 오리라고 탄식까지하던판에 면사폭등으로 삼품주(三品株)이 주식시세를짐히는바람에 동신노폭등되엇다

★

원래 조선사람은 전통적으로 사서먹는줄는알어도 갈어서먹을줄은모른다 산다는것은 도수고사는것이니가납겟지만 주를가지지안흔사람이 판다는것부터 얼는생각하면 섯투른소리이기때문에 또는대정팔구년호경기시대에 사서수난사람이 만혀던관계도잇서 도대처아직까지도 주식은 사서먹는것으로만 아는데나가 이·이륙사건이래 혼은낫지만 인풀레경기가 오리라고 보기때문에『마바라』손님은 대개가 산는터인데 년말마즈막 엣철에 폭등되는바람으 사가지고 쩔쩔매든 사람들이 당장에 수가낫고 새해를 마지하야 첫창은 평온하얏스나 십일전후 면사가 뛰는바람에 종신(鐘新)주가 이백삼십원이란 폭등이고 동신도 길백주[illegible]크게 또 수가낫다 그리하야 취인원(取引員)측 중매점중에 어떠사람은 백만원이상을 먹엇다하나 그자세한수자는 알수업고 조선사람손님들은 작년일년동안 큰소리못하고 울상만 하든손님들이 복이터저서 오륙천원을한손에 쥐인사람은 건성드뭇하고 대개는 평균이 삼천원씨리를 보앗다하니 이번폭가폭등에잇서 대중적으로보아 명치정주식장에서 조선사람들을 경기조흔것으로 첫손까락을 꼽지안흘수업다 그반면에 소위(구로도)다는 사람들은 인기에 반대로 영의하게 논다고하다가 큰손해본것은우수운일이다

★

그다음 은행마도꾸지(窓口)로내대본 경기는어떠한가하면 은행으로서는 그영업의성질상 어도 항상경계의태도를 취하야하는것인만큼 인풀레를 암만떠드나 작년년사가 조선은 흉작이엇기때문에 염려가업지 안헛고 년말결제자금(年末決濟資金)이 년초에잘 회수(回收)될가 걱정되엇기도 하얏스나 새해들마지하고나니 의외로년말자금 회수가 순조로잘들어온것을보면 적어도 은행을통해본경기는 조타할수박게 업다한다

★

대중금융기관으로서의 전당포(典當舖)는어떠한가? 일반물가가 올랏나하니 집물(典執物)을 그러타고 비싸게처서줄 형편은아니오 언제던지가장 튼튼하고 돈복이나가기는 금부치인데 금값은 아프로 돈값이떠러지면 떠러질수록 금의값은 더욱 노파가고 더구나정부의 금매상가(金買上價)를 올리리라는말이 가끔신문지에나는만큼 금부치를 가저오는손님을 가장환영하고 잇다한다

鐵道局에서풀려나올 黃金!一億萬圓

土木業者어깨으쓱할이야기

각의의 결정으로 의회(議會)에 제출될 조선특별회게예산(特別會計豫算)가운데서 철도국관게의부분은 건설(建設)및 개량비(改良費)가 일억이천구백오십구만칠천원으로 구개년계속요구총액에서 일천만원가량 삭감되엿스나 일즉이 보지못한 방대한 예산인데 이가운데서 소화십이년도분의 분할액은 심의중이나 추가예산(追加豫算)가운데서 약이천오백만원(이가운데서 일천삼백만원은 차량건설비)과 개량비(改良費)일천오백만원가량은 배당되게 될터이므로 십이년도의 건설및 개량공사비 배당총액은 십이년도의 계속비년액(繼續費年額)을 합하야 약구천오백만원을 되여 작년도보다 이천오백만원가량 증가될 모양이라한다 그러고 경상비(經常費)까지합하면 십이년도중에 철도국에서 흘러저나갈 돈은 약일억사천만원가량되게 될세음으로 토목업자들에게 풍성한 세월을 나타내게될것으로 예상된다

方興龍에게 三年役求刑

작년사월삼십일 중국남경에잇는 민족혁명당선전부장 최동오(崔東旿)의소개로 민족혁명당에 가입한후 그당서긔부장 김원봉(金元鳳)과 조직부장 김과봉(金科奉)등의지령을바더 오월이십사일조선자긔고향에돌아와서 야소교도 룡충심으로 그당원모집에 노력하엿다는 강원도횡성군횡성면북천리(橫城郡橫城面北川里) 방흥룡(方興龍)(三?)에관한 치안유지법위반사건의공판은십구일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 주심 장괴(長崎)검사 립회미테 열리여재판장의 간단한사실심리가잇슨다음 검사로부터 징역삼년구형이잇섯는데 언도는오는이십육일에 내리기로되엿다

鬻島殺人犯 取調一段落

今日中局

근래에드문 렵긔적사건으로 잔인을극하여뜬 서뚝도리일본내지

二·二六事件餘黨犯罪事實概要

일 로화[illegible]용선도모에 참가한사건의 범인연자근[illegible]·[illegible]파복[illegible]취소 태영(玉泰榮)[illegible]령은 일난닥불지엇슴으로 이 그동안 심일 중에는송국하게되엿다고한다

一、澁井佐吉 만정작길은 육군대학졸업후 주로육군중앙부에 근무해온 육군중좌이다 상태사건공판때에는 중신、재벌등소난 특권계급에항하야 준열한비판공격을 퍼부어 울의률일으켯든일이잇섯고 이、이륙사건때에는 반란장교와 련락하야 강력내각조직의 기운을붓돗고 평소의지론인 소화유신의 실현을위하야 반란자에게 군사상 리익을주는 행위를 하얏다

一、菅波三郞 관파삼랑 대위는일본개조법안 대강을읽고나서그주장에공명한후 이래 국가혁신운동의 와중에뛰어들어 청년장교사이에 급진적 혁신사상을 고취하고 민간의 동지와 접촉하야 소위소화유신실현기운양성에 힘써오든중 이월이십륙일 임지록아도(鹿兒島)시에서 이번 사변의 일어남을알고 반란자의 목적달성을 지원하야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야 반란자의지위를 유리케하기에 노력하엿다

一、大藏榮一 대장영일은 이년이래 국가혁신에 운동에 공명하야오든바 이월이십륙일 임지라남(羅南)에서 사건이일어남을알고 반란자의 목적달성을 유리히 전개시키기에 노력하엿다

一、末松太平、志村陸城 말송태평、지촌륙성은 이번반란사건피고인들과 동지적관계를 매저오든바 이번사건이 일어남을알고 지촌은 임지청삼(靑森)에서 안등휘삼(安藤輝三)에게 사단은 우리와함께행동할것갓다는 전보를처서 반란자를 유리케하엿다

一、志岐孝人 지기효인은 임지구류미(久留米)시로 왓다갓다하며 또는 웅본(熊本)시에서 남구수(南九州)에잇는 동지와 련락하야 반란대를 지원하엿나

一、齊藤劉 재등류는 예비역으로 명륜회(明倫會)리사로잇스면서 률원(栗原)등동지와 련락하야 그자금을공급하야 반란자의주장을 옹호성원하엿다

一、宮本正之 궁본정지는 촌중효차(村中孝次)로부터 유신단행에관한 이야기를듯고 서전세(西田稅)의 시사에따라 금택(金澤)시에 천검국(天劍黨)을조직하야 유신단행시의 별동대를 양성하여왓다

一、越村捨次郞 월촌사차랑은 전기천검국의 고문인데 사변발생당시 석천현(石川縣)지사에게 면회하야 소화유신단행취지에 찬동시키려하다가 면회거절을당하자 금택시 광판(廣坂)경찰서에가서 면회알선을 청하다가 거절을당하자 그서근무경부보 토전행태랑(土田幸太郞)에게 그서순사의칼을 빼어찔러 경상을입히엿다

一、福井幸 복정행은 상택(相澤)사건이 일어나자 촌중(村中) 기부(磯部)서전(西田)등과함께 대안목(大眼目)이라는소책자를 발행하야 유신촉진에 노력하엿다

一、加藤春海 가등춘해는 일본개조법안대강의취지에 공명하야 서전 삽천(澁川) 부정(副井)등과함께 직접행동도 할수업다는 구든신념을가지고 신운동촉진에 노력하엿다

一、佐藤正三 宮本誠三 좌등정삼 궁본성삼은 복정등과협력하야 혁신운동을 지지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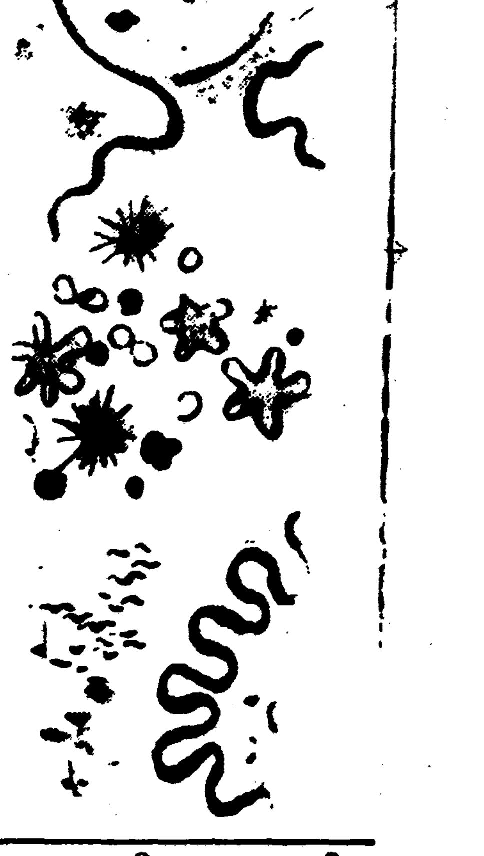
一、杉田省吾 삼전성오는 가등(加藤)좌등(佐藤)궁본(宮本)등과함께 반란부대지원을위하야 정보를수집하고또 지방부대에 궐기를 선동하엿다

一、町田專藏 정전전장은 일본생산당(生産黨)관동본부리사로서 천대전(千代田)통신사외제국신보사(帝國新報社)의 축합을꾀하야 여러가지정보를 수집하여 오든중 사변이발생하자 반란부대를 지원하야 그들의목적을 달성시키고저 식료운반배급기타 여러가지행동을하엿다

列車、自動車衝突

婦人乘客一名負傷

십팔일오후아홉시오분 진남포(鎭南浦)를 출발한 평양행렬차가 평남가도의 철도길목에 다다랏슬때에 진남포역전 일광(日光)택씨운전수 서영홍(徐永洪)이가 부인승객한명을 태우고철둑을 건너가다가 렬차의 측면에 충돌되여 자동차의 일부는 파손을당하고 승객은 경상을당햇다고한다



性的不能不滿을내버려두면

狂人이되든가 自殺을未免!

그러나絶望마시요!

科學的神方强精術의公開

이秘法으로救濟된衰弱者數萬人、回春되여 美妻를마지하야서、所願成就한者도無數!

이것든富貴와精力을 도로찻게한秘藥 吉見兼造

男子로태여나서 富貴와功名을貪내지안는이누구이겟습니까、實로못는한希望으로奮鬪努力한結果、겨우財産과名譽를어더成功의域에 이르려는途中十數年間의辛苦로身心과 精力까지漸漸衰弱해젓스며 記憶力과判斷力이도모지업고 첫재活動할元氣가업서저서 精神의慰安肉體의快樂을 모르게되자妻도크게不滿이生겨서 結局失望의 끗헤가리生命을 끈어버리라고까지햇습니다。 그러나妻가다시한번昔日가튼 榮華를生前에보고십다哀願함으로 物理療法과十餘種의精力藥을써보앗스나 金錢만浪費이요 아모效果업고 (中略) 킹·오프·킹스의偉效를 實驗者로서도 直時五圓甁을 注文하여服用하든 그날밤부터 氣味가잇서놀낫스며 말할수업는 精力이끌어 連服一個月에 只今은 財産과名譽를 다시차지하게된것도 킹의靈効인줄로 다만感銘할뿐입니다。

아-깁뿌도다靑春은 永遠히내것이다 二木定次郞

成功하것다는一片丹心으로 밤낫가리지안코活動을너무過하게한탓인지 밤에도잠못자고자면꿈뿐이여서처음에는 술기운으로 좀安眠이되나 그러나 술긔운이업서저 눈이떠질때에는 頭痛이나고몸시무거워저서아모런生覺할氣運조차업스며 記憶力까지업서저 方今들은이야기도이저지게되고 夢泄은連夜계속되여몸은작고 수척해지고송장가티 蒼白한얼골이되엿스며 가슴이울렁거리고 숨이차게되여 性慾은異常하게亢進되나 目的을못이루게되여 그焦燥한心情은 꼭밋칠것갓햇습니다。 즉타는高價藥과動物의 生血을먹어보아도、金錢만 버리게되고 效果가업시 悲化될뿐이엿습니다 그러나가킹、오프、킹스ㅣ참말나는이것으로 頭腦가조아젓고元精力이눅바처저서 夢泄도모르고熟眠하게되여서 特히人生의快樂을맛보게된것도킹의德分이올시다。

다러난妻에게復讐 美妻마저無上의快樂 山本俊一

藥이란그러케잘안듯는것인줄아는 나로서는、오프、킹스를먹어본뒤로부터는學理的으로 信用잇는藥이면神効하나는것을깨닷게되엿습니다。頑固한性的神經衰弱으로나날이여위여가는몸으로 到底히妻의게滿足을못주게되여서 家庭은冷冷하드니、及其也妻는다라나버렷습니다。怒髮衝天할勇氣도업고失望한듯이自殺하려든昔日新聞에서킹、오프、킹스를보고 卽時注文하여든것이再起하는스타ㅣ트가되엿습니다。昔日부터全身에 무엇이라고말못할힘이끌려나오며 혹근혹근한것갓고머리속도 雲去靑天해졋습니다。그다음부터서는 刻刻이精力이넘치는 것갓고元氣가나서 그러케頑固하고 難症이든것이 고만全快되여서젊은 女子의게장가들어서 幸福한生活이도로왓스며 商賣도繁榮하게되엿스므로다러난前妻에게 對한復讐도充分하게된것은킹·오프·킹스의恩澤이와生前에는 잇처지지안흘것입니다다계속하야十圓甁二個만주문하심니다。

人生을明朗하게맨드러주는것은精力으로精力만旺盛하다면 財物과金錢과權力이라도 마음대로쥐일수잇는것이다。그러나精力가치衰弱하기쉬운것은업다。두어時間睡眠이不足하거나 一次의異性과의交接으로精力은 그만衰하는것인故로 끈닐업시補强식히지안으면못쓴다。내버려두면精力은漸漸微弱해서再起할수업게되면 自己의一生은暗黑하게되며家庭도드듸여엉망으로되고 金錢과名譽와權力도 드用업게되는것이다。이러한때에무엇이第一効力이잇슬까？엇지하면 이러버렷든精力을回復식히고 氣運차리게될까？ 그것은 우리日獨醫學博士羽太銳治先生이 大發明한 藥킹、오프、킹스가단벌일것이다。

近者流行하고잇는홀몬의注射는大端히잘듯는것이다。月經이업는女人이月經을하며性慾이업는少年이大人과가티性慾이旺盛하게되는實로神通한效果가잇다。킹、오프、킹스는 홀몬注射以上으로效力잇게發明한神秘劑로如何한方法으로도 全治안되든重症의性的欠陷도眼間精力이旺盛하게복바치는것은上記의實話를보시면 아실것갓다。最近에이르러大靑年靑年特醫할것을全部重體로해서는 價格부터서高價로만처볼수도업는 眞僞高貴한東洋古來의 神藥强精補腎藥이犧牲的으로 本劑에加味되여잇는點으로 보아도藥효과 協力하야 注射의數倍나되는 效果가나타나게된다。 衰弱者시여 卽刻이킹을 服用해보시라。

神効란 凝心못한다 醫學博士 羽太銳治 先生

回春이란長生이요 不老그것으로서 永遠히靑春을保全하는것이다。古來傳說的으로는不老不死의 方法이잇스나 實行할수업는것가든것을 느러노은것에지나지 못하는것이엿다。나는動物의 호루몬其中에서도 特히性호루몬을專門으로 硏究하야서、前人未踏한 神秘를 說明할수잇는 最初의一人으로 自處하는바이외다。그것을 土臺로사람이 病이나거나나이가만아가는데따라서 性的으로衰弱해지는 原因을硏究함으로 엇떠케하면 이것을 救할수잇슬까하는 重大發見을하게되엿다。그것을또한 科學的으로完全하게表現식혀노흔것이킹、오프、킹스이며 此藥은世界에도업는것이요 如何한媚藥이라는것이나 回春藥도 좃을수업는것이다。社會의進展에따라서 神經的의病과早老肉體의衰弱에는 完全無缺한治療劑이요 必須의科學的媚藥이외다

一般藥店에는업스니直接左記로

僞造物을防止하고 神効가强한藥을 直接으로讀者여러분께頒布해드리기爲하야서 곳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ノ一合名會社壽泉堂(振替東京七七一番)으로 振替又는爲替로는代金引換으로注文하시압。 百粒三圓、二八〇粒五圓、六百粒十圓外 送料各十五錢이라는 大廉價로 人生의 快樂을 맛보게됩니다。

一月十九日부터特別大興行！ 鬼才조ㅣ지B、사이쓰氏監督 赤陽의斷崖 유나이팃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暗黑街全滅 리하ㅣ드아ㅣ렌氏大熱演 비니ㅣ반니ㅣ스 부루ㅣ스가봇도 헨리아ㅣ부루ㅣ스 아러ㅣ스브래디 共演 유나이팃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其外 漫畫 數卷

優美館 黃金町 電話本局二三九五

一月十九日낫부터三日間大公開 三大名畫豪華週間 每日三回晝夜公演 一回十二時부터二回續映 三回七時始映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三百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活劇 國境飛行隊 監督 노스래ㅣ다만氏 主演 아려지스·도미氏 아니다·메지孃

松竹下加茂特作全發聲版 監督秋山耕作氏 時代名篇 鈴木新內 主演 阪東好太郞氏 飯塚敏子孃

파라마운트社超特作無聲版 監督로우란드비리ㅣ氏 冒險活劇 월ㅣ街의狼 主演 조지·방크롭트氏 共演 난시·길로孃 포ㅣ루·루가스氏

第一劇場 電話光化門一七五五番

◇一月二十日부터三日間！ 料金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均一 土曜日曜祝祭日은晝夜二回上映 낫一時 밤七時始映 ◇三大超特選名畫大會◇ ◇滿映社超特作絕對豪華版！ 同時錄音朝鮮語全發聲版

아리랑第三篇 春史監督 李信雄撮影 羅雲奎 申一仙主演

◇佛蘭西S·I·C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胡椒娘(빠쁘리카) 監督 잔도·리미유氏 主演 레이누·도·지레이孃

◇京城撮影所特作品 史劇 방아타령 監督 金相俊氏 主演 李慶善氏

次週‖結婚十分前‖寒稚‖

桃花劇場 麻浦桃花町 電龍一三三番

一月十八日부터特別大興行 劇團文秀星大公演 藝題每日交換 ▲林仙圭作 人情悲劇 萬年草 全三幕 時代劇 槍魔 都浪 全幕 社會劇 어머니된罪 全幕 悲劇 ◆幕間◆ ▲一流藝士리즘뽀이出演

光武劇場 上往十里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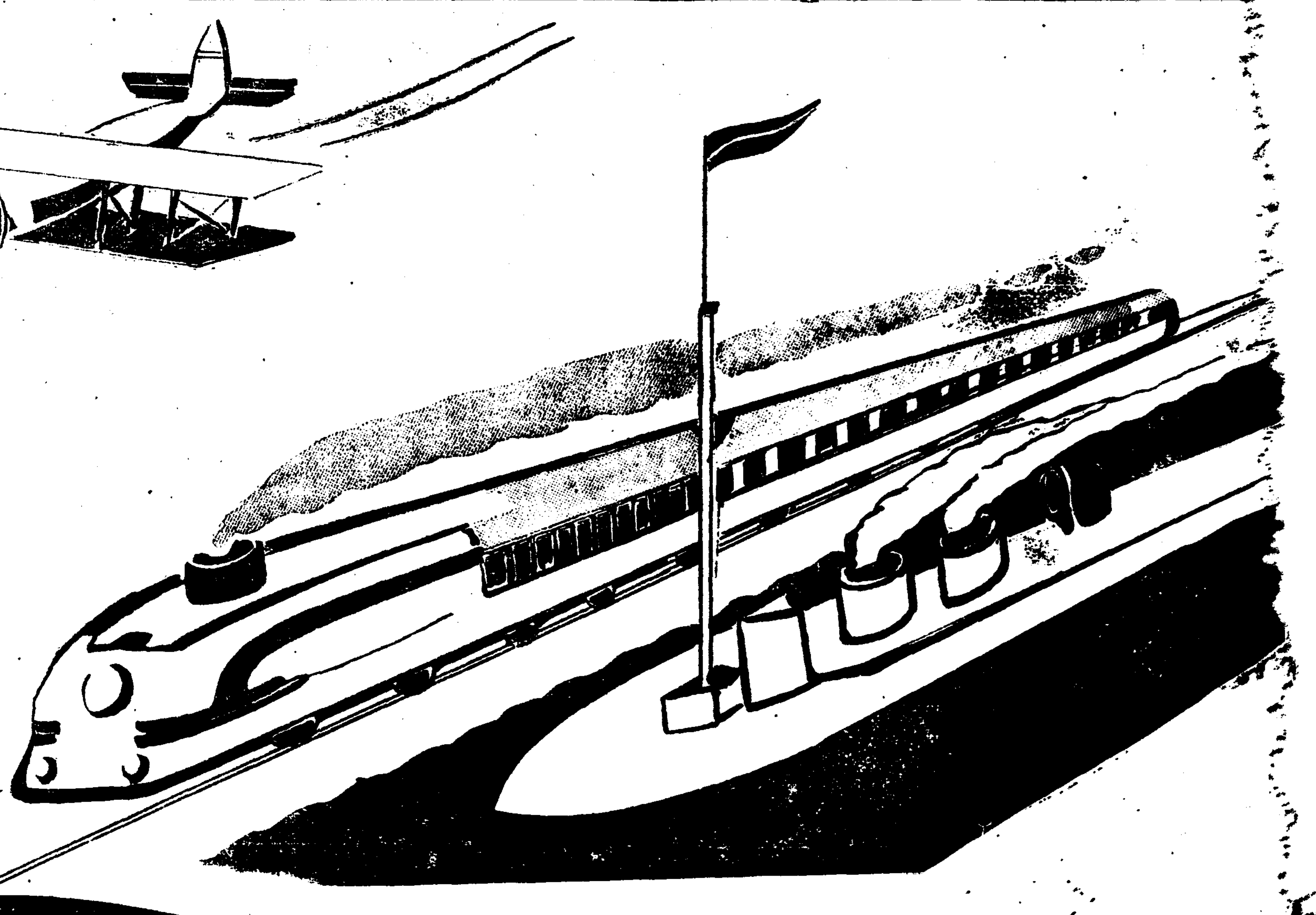
天勝一行專屬舞踊家 藥師ト키子特別出演 ▲番外數種

1 前奏……리즘뽀이出演
2 獨唱……丁順孃
3 獨唱……姜潤根孃
4 獨唱……金貞順孃
5 舞踊……林미샤孃
6 舞踊……藥師ト키子孃
7 間奏樂……리즘뽀이出演
8 獨唱……鄭東秀君
9 獨唱……金마리아孃
10 舞踊……ト키子孃
11 舞踊……林順姬孃
12 間奏樂……리즘뽀이
13 스켓치……林員君 申一仙孃

朝鮮日報 釜山支局 長距話釜山二八九七番

朝鮮日報 京城販賣 電本局一五九七

朝鮮日報 江華支局 電話三十一番



驀進!!

超스피ー드時代
病은一秒를다툰다

지금곳안곳치면 대대손손칠팔대까지유전하는무서운병은매독이다

매독은 당창、또는창병이라고하야 살이떡떡써어들어가는 무서운병이다 코가떠러지고、○이빠지는 병인줄은세상사람이다ー아는바이다。그런대 사람치고누구나다ー병근이잇다는대、병이발하야 심하야저야、치료를하나잘안낫고 나날이써어드러간다、륙백륙호를맛는분도만흐나、잘안되는 모양이다、그증거는 이세상에서 매독이 업서지지 안는것을보드라도 잘알수잇다。그런대 이『푸로다』는 무엇보담답지하는 감상이 증명한다。

당신의 생명을구하여주시는 구명수(救命主)가 왓습니다。천사가(天從)왓습니다。이기회를일치마시고 꼭잡으시오。일각이급하오니곳치료하시오、주저마시고 다음과가튼 증세의분은쓰시오。

여드름이만히나고 종기와헌듸가잘나고、코가헐고、남녀간에국부가헐고、가렵고 전신에 종기가룩룩터지는분은쓰시오。눈이희미하고머리가빠지고、팔다리가 쑤시는분은쓰시오。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주문하시면 당일로비밀히보내드립니다。약은 환약이오 일주일에효를봅니다。

매독엔푸로다ー를 쓰시오

만일무효면엇더한책임이든지집니다

육백육호를여러대써도안되는분은꼭한번시험하시오

【가약】
병이중한데는 칠원
병이원만하면 오원
병이시초면 삼원
지방송료
선금무료
대금인환 삼십오전
병이좀심하면칠원쯤이좃습니다

京城府西大門入口 (제일은행맞은편)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三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000794

이원장 광고를 내는 리유(理由)는 신성당 사장은 륙칠년전까지 매독이라는병이 어떠한 병인지 자세히 몰랏섯다(물론병에 걸린일이 업섯슴으로) 그뿐더러 매독에는 륙백륙호만 마지면곳낫는 줄알엇섯다 그런데근래(近來)륙백륙호로 매독이완전히 근본적으로완치된다는 말도듯고 또실지로연구하야보앗다 또 매독환자는 그다지만 치안흔줄알엇섯다 그러나 그생각이전연(全然)근본적으로 잘못알엇다는 것이판명되엿다 측륙백륙호를 매독에걸려서즉시 계속하야 일주일만에 한번식십여대나마저야 겨우일시적효력을알게되고 잠간동안잠복시켜 매독을눌러서못성하게 하얏다는것을 알엇다(일주일전에 또 마질수업는것이다 일주일전에 또마지면따병을알케되고 잘못하면숙는고로일주일만에 한번식맛는것이다)다시말하면 결국 륙백륙호로는 절대로는 매독이근본적로완치되지안코 또십여대나주사를마저야 겨우일시적정지를시킬수잇스나곳또다 시재발하는것을 알엇다 그러면 륙백륙호를칠십일이상불일못보고 돈을오、륙십원이상허비하고 주사를마젓짜아모소용이업고 귀중한시간과금전만허비한다는것을 알엇다 그뿐더러 륙백륙호를마지면 몸이약한사람은 약일주일동안은일을못하고 알코들어누어서고통을밧는 사람이만타 또주사를잘못마저서 즉주사가정맥외(靜脈外)로새면살이썩어죽게되는고로 곳팔(腕)을잘러버리고병신이(不具者)되는 사람이만흔것을알엇다 또 그뿐더러열중에칠、팔명(十中七、八名)은돈이업고서서(金錢과時間이)주사를열대(十本)이상맛지못하고병을그대로두어서살이떡떡써어들가는것을 만히보앗다그일예(其一例)를들면하로는경성시내에잇는한남자가원전신 매독이만창이된시골머슴을다리고(雇人)왓는데와서이병좀고처주시요하고랫만데그병처(患部)를보고 깜작놀고다 그병처라는것은당초에 말할수업는것이다 즉분문(肛門)과낭(囊)사이에이전(一錢)짜리동전만하게큰구멍(孔)이빵뚜러저잇섯다 아이저러케몸에 구멍이뚜러지고도사람이어떠케살어왓나하고 차차물어보니서울서머슴사리를하다가 시골서 역시 머슴사리를하는데 우연히매독에걸려차차 살이써 어먹어들 어가나머슴의 신세라약 쓸돈도업고 주사마즐 돈도업고하야 그대로내버려두엇더니 그러게 구멍이크게 뚜러젓고요지음은전신에 종긔부스럼이(梅瘡瘻)룩룩러저 인제는못살것가터서 그전살던서울 주인을 차저와서 그전살엇든 정의로 사람좀살려주시오하고 애걸을하러온것이 판명되엿다 그리하야 그주인이돈은내가낼터이니불상 한사람을 좀 살려주시요 하고 차저왓섯다 그리하야약을 주엇더니 완전한 사람이 되엿다 고편지 가왓섯다 또한례를들면 그후

에웬남자가한부인을데리고왓는데 얼굴이만창이되여 송신처럼두덕이가저서 소름이끼치여서 눈으로는볼수업시되엇는대 그부인말이이병만곳처주면 죽어도그은혜를안잇겟다고 우는소리를하면서하는말이여자가얼굴이이럿케되여 남이붓그러워살수가업스므로주사는물논 여러백대를맛고약이라는약은엇는대로다ー쓰고별별치료를다하여보왓스나 종시낫지안하는대 엇던사람은암만매독으로치료하여도안나으니 매독이안이고풍이라고하야 풍약도무수히써도 안되고하나신성당매독약푸로다ー는매독이아니고풍이라도나을수잇는야 고말을하얏다 신성당 매독약푸로ー다는단술히매독측창병만낫는것이안이고보혈청혈(補血、淸血)피를깨끗하게하는약임으로 서령매독이안이고풍이라도조호니한번시험하여보라고하엿더니 멧칠후에 그부인이왓는데말숙한미인이되여왓다아ー참위대하구나약의힘이여그럿케도무섭게생겨눈으로 볼수업든사람이수일간에미인으로화하는것을보면 그리고그부인말이인제는사러낫습니다선생님의은덕이야 그야말로태산갓다고합니다이러한자신하에서 그뒤로 차차연구를거듭하여보니무슨병이무섭다하여도 매독가티무서운병이업는것을알엇다즉임질이나부인대하증냉병은 작손에게유전(遺傳)은안되는대이매독은자손에게 유전함뿐더러칠팔대(七八代)를대다로전하여가는것을알엇고코가떠러지고○도빠지는것을알게되엿다즉남편에병니에걸면그부인도물론곡걸니고아이도피속에그균(菌)을가지고나온다참무서우병이다 그리고매독환자는적은줄알엇더니사실은그럿치안타다ー비밀에 붓치고말을안하는고로 업는것가트나그럿치안타열중에오륙명은잇다 그런대대개는상약이나주사나 만히하엿서도낫지못하고고통으밧는것을알엇다또수은(水銀)을피다가주은 사람이만코다른훈을 하다가병신된 사람이만타또조약상약(造藥常藥)을쓰다 가피를토하고구감(밥통)과창자를버려)이나서죽게된사람이대부분이다 그럼으로이무서운병을알면서그냥둘수업스므로충분히연구를하여섯다그리하엿드니감사장이매일답지하므로자신을어더이와가티광고를내게된것이다천만가지로약을하고별별치료를다하여도안나어고통하는분은일시라도주저마시고곳시험하시오틀님업시낫습니다

매독엔「푸로다ー」로

大神聖堂의陣容

支社、代理店、特約店一覽

◎支社

全南光州府明治町四丁目一七　光州支社　宋淳炯
黃海道海州邑南本町一六〇　李光澤
京畿道水原邑北水町　孫良明
軍威　趙明倫
長湍
平北宣川邑　宣川支社　支社長 李日貴殿
安養　安養支社　支社長 朴在承殿

市內卸賣總代理店　鍾路三丁目　第一藥房

全北代理店 群山江戶町 玉山堂藥房
忠南之部 代理店 大安邑內 [illegible]
慶南之部 代理店 [illegible]浦 [illegible]
黃海道之部代理店 黃海道長淵邑 金[illegible]藥房
咸南之部 代理店 端川郡汝海津 [illegible]
咸北之部 代理店 永興郡宣興面 / 大津 [illegible]
芦洞驛前 天佑堂藥房
京城之部 特約店 京城府淸凉里町一二九
京畿道之部 特約店 仁川府外里 / 金浦邑 / 始興郡新東面平昌里 / 京城府[illegible] / 永登浦 永登浦藥房 / 水原郡鄕南面發安里 / 龍仁郡南西面厚鳴里 / 漣川郡南面華山里土橋場 / 京畿道水原邑內 / 京畿道陝谷驛前 / 京畿道素砂驛前 / 永登浦町五三二 / 楊平郡龍門面新店里
忠南之部 特約店 大田府大東町四九 / 洪城邑豐慶園 / 成歡驛前安成商店 / 扶餘郡良化面草旺里 / 公州郡錦町 / 全義驛前 / 忠南溫陽溫泉 / 忠南瑞山泰安面 / 忠北丹陽郡大岡面金谷
忠北之部 特約店 淸州郡米院面岐岩里二〇九 / 忠州郡錦町三八 / 忠州邑淸水町一二〇
全南之部 特約店 順天邑金谷里 / 潭陽郡大田面谷城里 / 木浦府竹洞木浦驛前 / 海南郡邑內
全北之部 特約店 裡山府藏財町一四五ノ二 / 金堤邑內 / 井邑郡笠岩面大興里 / 井邑郡七寶面白岩里 / 茂朱郡赤裳面北倉 / 益山郡王宮面興岩里 / 全北裡里邑內南中町四六二
慶南之部 特約店 京釜線勿禁驛前 / 咸陽郡安義面錦川里 / 河東邑 / 晉州邑昭和町大明堂 / 晉州邑明治町 / 晉州郡日出町一〇九 / 晉州邑日出町六二 / 晉州邑日出町 / 晉州邑榮町 / 馬山府俵町 / 馬山府石町 / 釜山府瀛水町義盛號 / 蔚山郡靑良面開谷里一六 / 蔚山郡凡西面斗山里 / 密陽驛前 / 泗川郡西浦面舊所里 / 馬山府富町市場入口 / 居昌邑內 / 釜山府瀛州町五一
慶北之部 特約店 軍威郡山城面三山洞三〇六 / 尙州郡邑外面 / 善山邑本町 / 稱德郡丑山面景汀里 / 善山邑內 / 佛國寺驛前
天和藥房

江原道之部 特約店 大邱府達城町三〇 / 淸道郡華陽面松金洞 / 慶北高靈郡雲水面法洞 / 金化郡邑 / 原州郡原州邑花月里一〇四 / 金城驛前 / 原州郡富論面興湖里 / 洪川郡化村面君峰里 / 平康郡福溪驛前
黃海道之部特約店 載寧邑內 / 鷄井驛前 / 鳳山郡德在面赤城里 / 海州邑北旭町二五七 / 信川郡龍門面福禺里 / 延白郡彰德里 / 海州邑內北幸町三六五 / 安岳邑內 / 載寧邑內
平南之部 特約店 沙里院本町通 / 南川驛前 / 平壤府鍾路 / 平壤府大和町通 / 大同郡斧山面中二里 / 龍川驛前 / 龍岡郡海雲面龍井里 / 龍岡郡海雲面城峴里 / 安州郡立石市 / 平壤府南町四一 / 平壤府橋口町四〇 / 平壤府鍾路
平北之部 特約店 碧潼邑內 / 滿浦線香山驛前 / 龍岩浦農民共生組合 / 宣川邑川北洞 / 鐵山郡邑內 / 江界郡公北面香河洞 / 熙川郡邑上洞八五 / 宣川邑川南洞 / 新義州彌勒洞 / 車輦館驛前 / 定州郡大田面雲鶴洞 / 雲山郡北鎭市 / 雲田驛前 / 新義州府眞砂町
咸南之部 特約店 新興邑內 / 定平郡新上驛前 / 永興郡古寧面三峰里 / 豐山邑內市 義信商店 / 長津郡邑內面上梅田里 / 新高山驛前 / 芦青邑 壽世局 / 北靑驛前 / 北靑郡下東面萬景市 / 鐵原邑中里 / 元山府南村町二四 / 元山府廣石町一 / 咸南北靑郡下車書面萬泰市 / 興南驛前九龍里 / 甲山郡惠山鎭本町 / 元山府
咸北之部 特約店 吉州邑內 / 城津港旭町 / 城津郡鶴南面禮洞 / 雄基港本町 / 會寧邑大正通 / 城津港旭町 / 淸津府新岩洞 / 朱乙驛前 / 明川邑明川洞 / 雄基邑上本町 / 羅南邑本町 / 城津邑旭町 / 羅南邑生駒町 / 明川郡下加面通浦
滿外之部 特約店 名古屋市南區中山町 / 島根縣美濃郡近見上野小原 / 間島龍井市大通路 / 安東縣平壤通九丁目三番地 / 滿洲國三江省依蘭縣三姓市南順前

支社設置大募集

各道廳●府廳所在地에서 支社經營하실有力한新進●事業家●大特典募集●
支社希望이라明記하시고規定書請求次第無料郵送함

京城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謹告

날이암만추어도 잊지말자 머리감을걸!

그러나 잘못하면 감기들기 쉬우니 주의해야할 몇가지점

추운철이 되야서 요사이는 땀이 나지 안는다고 하지마는 아모래도 몬지에 비듬에 기름바르는 안악네의 머리가 깨끗할 수는 없는 일이라 여름과 가려 자조는 못하드라도 한달에 한번이고 두번이고 감지를 안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더구나 부엌속에서라든지 방스속에서라든지 일을 좀 하리게 되야 머리에 기름이 고만 걸어 버리기나 하면 그 머리에서 괴상야릇한 기름냄새가 풍기는 까닭으로 여러사람의 구역을 상케 하야 밥맛을 떠러트리는 일도 업지 안합니다. 그러나 겨울에 머리를 함부로 감다가는 감기에 걸리는 것은 물론이요 머리도 버리기 쉽습니다. 그 점을 주의해야 만합니다.

머리털을 아프지들 안타고해서 가루비누나 샴푸·크림을 칠해 노코 그저 인정업시 벅벅 문지르시는 분이 게시나 머리털도 결코 빨래는아닙니다. 또 설사 빨래라고 하더라도 그럿케 함부로 문질러서는 옷감을 전부 상하야 두번 떨곳 입게 될것입니다. 그럿고 너무 뜨거운 물도 재미 업고 아조 찬 물도 재미업습니다. 그저 뜨뜻한 물에다가 담그고 살살 문질러서 때를 빼야야 할 것입니다. 또 가루비누나 샴푸 크림도 한번 잔뜩 칠하야자 그대로 때가 말끔하게 빠지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금 조금씩 칠하야 가면서 물에 씻고는 다시 칠하고 또 물에 씻고는 다시 칠하는것이 때도 잘 빠지는동시에 도리어경제도 되는것입니다.

×

한번 감고 나서는 머리를 말리기가 큰 문제인데 그중에서도 머리끄지 좀처럼 말르지를안는까닭으로 머리에 귀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른수건을대고 꾹꾹 눌러서 물스기를 말끔하게 빨울것은 물론이어니와 그대로 머리를 쪽지거나 틀지말고 중간만 동여서 한참동안 풀어느려트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저큰머리를 해스벼체 쪼이어 말리거나 뜨거운 불스기운에 쪼여말리어서는 머리가 잘 빠저버리게되기 쉬움으로 한성치못할 일입니다. 또처른머리에다가 머리지지는 인두를 대는것도 머리를 해롭게하는것이 되는만큼 조치안습니다. 공기로 말리는것이제일입니다. 그 외에는 다해가 잇습니다.

×

그런데 물스기잇는 머리를 풀어 느려트리고 찬바람을 쏘이다가는 감기가들기 쉽습니다. 더구나 그 물스기가 한번 얼엇다가 다시 녹도록 되야서는 더 몸에 리롭지 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감으시려거든 미리부터 날이 조코 해벗치 바짝든 한낫을 택하서야만 됩니다. 흔히 밤에 일이 적다고 해서 밤에 감으시는 분이 만흔데 그것은 그다지 잘 생각하신일이 못 됩니다.

가정의학

위하수증

問 이십팔세남자인데 숨이차고 무단히몸이 쇠약하기로 병원에가서 엑스광선진찰을 한결과 메로밀파선이 비대하고 위하수증이라하오니 그원인은 미상하오나 상세한 처방을가르처주시기 바랍니다 (…生)

答 당신이 진찰하신병원에서 적당한 처방을 어련히 복용지료하섯어 가합니다 나히에되는 참고로말씀하면 당신과가튼 파선비대에는 그리 위험하지안흘거시오니 안심하시고 위하수증에는 뽀로타미라제호미가 엑쓰등을 소화게 호엽하여 복용하시고 한편으로는 소라로 손또는 오프타몬손등의 아비산제를 주사하여 체질을 튼튼하게 하시이 조흡니다 배꼽을 중심하여 뗘는것은 복부대동맥의 박동이오니 신경이과민하여 예민하게알 …

장래공이만소

問 이십세남자인데 잘 … 때에 … 오면 매우 … 자에 대하야 … 만코 … 오니 허약한탓입니까. 도잘때에 … 동안이 나서 동증에 이러나는 일이잇습니다 이것이모두병적일까요 상세한치상으로알려주시기 바랍니다(…一聲)

答 이상생체에는남자로 혹간 그러하면병적이아닌것에오나 재조그런일이잇다면 신경쇠약증의 경한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특별히복약의필요는업고 다만욕을자조하시고 공상을말며 취침전에 음식을먹지말게하야보십시요 (…醫院長 朴…來)

륵막염의재발인가

問 이십일세남자인데 약일년전부터 호흡을 크게하거나 기침을하던지 배에힘을주면 우편허리갈비쪽이 작작 마친니다 작년류월에 륵막염으로인하야 치료를바든일이 잇는데 륵막염이나 아닐까요. 식욕도조코 신열도업스며 대변 도수도 평소와갓습니다. 병명과치료법을 가르처주시옵기 바라나이다(農村生)

答 륵막염의 재발증세인것갓습니다 아프신곳을 온엄포(溫罨布)를하야보십시요 도는아스피린제를 내복하게하십시요 대개는 가려안흘것갓습니다 만일 심하오면 전임지료바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바드시는것이 조켓습니다(…醫院長 朴…來)

안경 — 쓸줄을 모르면 몸이 해로한다

시력이 나빠쓰는 안경은 다만 도수만 마지면 그만인것처럼생각해서는 잘못입니다 그쓰는 방법이 잘못되면 신경을피곤하게하고 전신의피로를 떠하게하는결과에 이르고맙니다.

안경은 좌우「렌즈」(複)의 안경입입니다 이렌즈가 눈스동자의 정면에오도록 귀고리를 잘 부려 마처쓰지안흐면 안됩니다. 그럼으로 안경을 조사해 가 광학중심(光學中心)이 좌우의 거리(距離)에 보아서 만약좌우의 거리가 …것난다면 그안경테를 버리고 새로고쳐서야할것입니다.

안경에는 근시경과 원시경과 … 원기안경 … 을 잘못보아쓰는 … 는데 근시에다가 난시(亂視)까지잇서 어두커지를 … 무엇보다도 근시의 도수 … 모든것이 보이는것은 … 는까닭이라 … 것까지 아라서 안경을 … 쎄야합니다 그럼으로 안경을 … 을사용은것쳐거나 … 사외 진찰을하야 안경도수에 … 처방을 가지고 안경 … 곳에 부탁해야 … 니다.

◇ 근시안경은 도수가 … 다 그러나 무리하게 … 이는 … 도 조목이 …

"매종류"

솔개는 병아리를 차갑니다.
◇
매는 꿩을 처갑니다.
◇
독수리는 토끼, 노루새기를 처갑니다.
◇
「곤도올」이란 독수리는 세상에서 제일큰 독수리는 사람도 처 가고 사슴도처 갓다합니다.

(군산사립박문호)

城隍堂 【6】

鄭飛石 作 鄭玄雄 畵

「응? 무슨놈이라구그래!」어서 달라요」

「글세 내맛트지다!」

「엉! 돌녀거나 조고런 달라오」

「정말 두지?」

「어 들어!」

「거짓말이 아니냐?」

「정 듣어 돌려거니 조고런달라구요」

긴상은 그제야 안족한듯이 벙글하면서 순이에게 저고리를 건네주엇다

순이는 저고리를 입고나서는 「응? 개떠것다 누구때, 말을 하는 뜻말를 거든이 가벌동으로 하다」

「순이! 정말 말안들을테야?」

「누구때 말을 돗가다가 추근추근이래?」

「분풀가서 조고리해줄거니 말들어요」

「난싫혀! 분풀가서 조고리두구레 입거들가」하면서도 아닌게아니라 순이는 분풀가서가입고 싶지 안혼것도 아니엇다.

그러나 순이는 긴상의 들어니꼬웟다 현보내엽에 늘 누러운 사람중에 순이를 늘애걸 … 다

「글세 백번 그래야 소용업며 두녀엿다」

그팔을 돗자 긴상은 날렌호랑이처럼 순이에게로 덤벼들어 순이를 휘여넘기려하엿다. 순이는 뒤로 휘끈 자빠지려는 다리에 힘을 주어 딱 버티고서 서 잡힌 저고리소매를 힘껏 낙거채려하는순간에 벌서 뜨거운 입설이 이마에 와다엇다. 순이는 떡 참을수가업서

「장, 개틀놈어!」하면서 두눈알이빠저나올만치 사내의 뺨을 휘갈기고 재비가티 날새게 숩속에서 뛰여나와재쥬빗듯하는비를 바드며 언덕길을 울켜집으로 다라왓다 숲속에서는 뺨마즈사내가 다라나는순이의 뒷모양을 노려보면서

「이년 두고보자!」할뿐이엇다

비는 쭉쭉 내리 쏘다 안개에 자욱한산도, 하늘도 보이지안헛다 만산이 한참흔들리게 옷는것처럼 쉬-쉬- 소리뿐이엇다 한참 언덕을 오르는 순이는 사나가 따라오지안는것을보고 발을멈추고 코스김입으로 호르른 빗물을 씻는다 그리고나서 벙그레 우스며 뒤를 도라보고는 다시 언덕을 추어오르다 순이는 비가 약수로 퍼부엇스면하엿다 비가 퍼부으면퍼부을수록 마음이 튼튼해질것가탓다 고개를 다 오른때에는 순이는 벌서 지나간일은 이저버리고 집에가면 흰고무신 신어볼생각에 맘은 날뛰엿다

발끄테서 모지락기가 프드드 하고 나리간다 비는 작구만 퍼부엇다

이틀이 지나자 읍에서 경찰서에서 현보를 자브러와다 현보는 아모말도 못하고 한참은 짱만 보고잇고 따라온 긴상이에게 건는고잇섯다 순이는가슴이 떨컥하엿다

「날내 가!빨리 빨리」하는재촉에 마지못하여 현보는 이러나면서 헤헤하고 눈물고인 눈으로 순이를 처다보앗다 순이도 현보를보자 우름이 북바처 올낫다

들어!」하고 휘 도라서스면, 웃가마 잇는곳으로 다려난다

「순이! 정말 이러기야?」하고 긴상은 잠간 멍하니 순이의 뒷모양을 바라보다가 순이를 따르기 시작하엿다 순이는 웃가마에 다다르자 숩풀한것이 시천이를 메고, 아궁지에 장작을 너헛다

아까부터 퍼지기시작한 검은 구름이 이제는 하늘을 휘덥고 쏴쏼한 바람이 휘지나가자 굵은비방울이 떠러지기 시작하엿다 산에서는 나무니피 서로갈리는소리가 소란하엿다 순이뒤를조차온 긴상은 순이게로 와

고 잇는사람어 틈이 잇섯다 하나는 긴상이고 또한사람은 산넘어 금광에서 일하는 칠성(七星)이엿다 칠성이는 돈은 긴상만 큼 잘생겻다 그래 순이는 맘에 들처럼 칠성이편이엿다 칠성이가오면 엇지 생기기는 긴상보다도 되려 칠성이를 허허자하면 시달린다면 —하고 생각하다가 순이는 속으로, 고개를 설네설네 흔들엇다 『칠성인 다 머래 현보가잇는데!』

긴상은 잠간 궁리를 하다가 『정말 싫으니?』

『정말 싫어!』

오디라 (라디오)

十九日(火曜)

◇午後六時 (東)近世日本英傑 伊能忠敬(二)

◇六時二五分 兒童新聞 日本放送童話研究會

◇同六時三〇分經典解說 李明世

◇同七時三〇分 (平)衛生講演 肺結核의日光療法에對하야 金 秉 瑞

◇同八時 歌曲 一、界面 …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文明仙·明杜元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一、短歌 天下太平 二、唱劇調 香歌中葉宮使徒到任하는때 宋萬甲 鼓手 韓成俊

◇同九時 流行歌 一、春月의大同江 朴英鎬 詩 牧人曲 二、봄마지 李石勳 詩 文湖月曲 三、黑샹미 朴英鎬 詩 牧人曲 四、말가든 처녀 朴英 鎬 詩 文湖月曲 五、他鄕의 金陵人詩 牧人曲 六、國境千里 金陵人 詩 文湖月曲 七、어지구나내마음 金陵人詩 牧人曲

第一放送

伊能忠敬 伊奏DK管絃樂團

二十日(水曜)

◇午後六時 (東) 日本英傑 伊能忠敬(二)

◇同六時二五分 (東) 青年時間

◇同七時三〇分 (東) 講演

◇同八時 (城) 邦樂

◇同八時二五分 (城) 尺八

◇同八時三五分 (東) 小唄

◇同八時五〇分 (東) 코라리

◇午後零時五分 歌曲 一、방아타령 二、靑春歌 三、사발가 四、山念佛 五、江原道아리랑 六、노들江邊 七、창부타령 洋琴 崔壽成 奚琴 李忠善 細笛 高載德

◇同一時一五分 婦人講座(一) 金活蘭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東京放送童話研究會

◇同六時三〇分 國語復習(二) 市川榮三

◇同七時三〇分 講演 中國의劇 梁白華

◇同八時 伽倻琴散調와併唱 一、散調 가, 진양조 나, 중모리 다, 자진모리 二、併唱 가, 단가 아서라世上事 나, 唱劇調 沈淸歌 姜太弘 鼓手 丁元燮

◇同八時三〇分 (東) 女聲合唱 가, 잘자거라우리아가야……오스로흠스키ー作詞 나, 어린이의노래……메이作詞 다, 카리스토라ー로 (배리톤獨唱)……메쿠라소ー平作詞 (무용구스키ー作曲吉田德郞編曲) 東京音樂學校合唱團

◇同八時五〇分 時調 一、平時調 二、辭說時調 李承煥 短簫 崔嘉成

◇同九時 (平) 긴아리外 金春紅 金山月

피아노伴奏 合滯幸子 배리톤獨唱 古田德郞 指揮 山本春雄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東) 講話

◇同六時 (東) 近世日本의英傑

◇同六時二五 (東) 副業講座

◇同七時三〇分 (城) 修養講座

◇同八時 (大) 義太夫

◇同八時三〇分 運合唱

◇同八時五〇分 (名)浪花節

二十一日(木曜)

◇午後〇時五分 映畵이야기「어세사람」 李昌興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자미잇는科學이야기 崔在瀚

◇同二時四〇分 小學生의 時間 『尋五ー全中ー』第一放送에依함

◇同六時〇〇 童謠齊唱 一、나무닙 二、송사리 三、백일홍 四、작은별 五、장군셔 六、나팔꼿 七、시골길 八、하ー모니카 九、망아지타고꼿타령 아지타고꼿터 京城啓明學院兒童 伴奏 鄭仁基

◇同六、三〇 算術講座(二) 安興孝

◇同七時三〇分(平) 講演 鄭載 이야기

◇同八時 뼈이올린獨奏 一、쿠라이슬러作曲 二、니드라이……부르크作曲 三、뿌르따들의노래……뻴스키、쿠사코프作曲 桑柱東

◇同八時三〇分 一、春鶯曲 二、… 金錦桃 朴桃姬 杖鼓 金永根 大笒 金一宇 피아노伴奏 李興烈

◇同九時 古談 거리속의異人 申鼎言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城) 講談

◇同二時 (城) 講座

◇同六時 (名) 이야기

◇同六時二五分 (城) 副業講座

◇同七時三〇分(東) 講座

◇同八時二〇分(東)라디오드라마

◇同八時五五 (大) 民謠

◇同九時五分 (東) 管絃樂

銀을內服함으로 深部殺菌에達成!!

淋疾治療上의新發見

京都帝國大學 化學研究所創製!!

注入藥·洗滌藥과가틍 外用局所劑는, 尿道一部의 炎症에作用될에 不過하고 病狀이이미 內部에蔓行된것, 特히婦人의 때에는 效果가能히 奏하하고 또使用上不快함이 患者의 가장苦痛하는바로 往往淋菌을 內部에 渗透케하야 慢性化하는일이만타

그래서 淋疾治療에는 細心한注意와 方法을 그릇치지 아니할것이 絶對必要하야 그것은 殺菌力이 强大한 內服藥을 適當服用함이 가장 分理的이며 完全한 內服藥의 出現이 淋疾界에서 一層히 希望하는것이다

銀內服藥의完成!

그런대 本劑パロール는 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에서 發明한 特許金屬オルガノゾル製法「」 最新 コロイド化學을 應用하고 强力잇는 殺菌作用을 가진 銀을 利尿作用이 잇는 마시소ー루산다루油(白檀油)中에 極微粒子, 超고로이도狀을 分散한 大發見完成으로 銀오루가노조루산다루油가 처음으로 最의 完全한 內服藥製出에 成功하얏다

特殊醫治作用

卽パロール는 內服의結果 銀이 血管淋巴管에 吸收되여 體液그것에 强한 藥效를 주어 循環을 利用하야 全組織에 渗透하야 特有한 ブラウン運動에 依한 深達作用으로 一 尿道 同海綿體, 攝護腺, 副睾丸勝胱, 腎盂, 子宮等의 全泌尿系統並全生殖系統의 深部에 到達하야 그곳에서 처음으로 獨特한 銀의 イオン化에 依하야 淋菌을 殺滅하는고로 男女의 慢性淋疾에 適好하다.

또淋疾의 初期에는 症狀이 漸次內部에 蔓行하는것을 豫防하고 治療效果를 發揮하고저 急性初期症狀에 極히 安全하게 短期間에 治療할수잇스며 不便不快가업는 等外用局所劑의 缺點을 充分히 補充할수잇스며 一般內服藥의 鈍渋刺戟, 胃腸障害等副作用이업고 治療經過는 實로獨特한 바이다.

パロール 卽 銀オルガノゾルサンタル 油는 京都帝大化學研究所內에서 그 特許施設의 理化學操作으로써 嚴密製造하야 同附屬病院泌尿科並婦人科에서 使用되는것으로 그治驗成績이 極히 優秀한 結果에 對해서는 同大學醫學部皮膚科泌尿科敎室 醫學博士 片山義郎先生이 皮膚科紀要第二十二卷第三號에 發表하야 이것을 醫學會에 報告하얏다 또パロール가 如何히 權威잇는 治淋藥인가도 알수잇게되엿다 그런고로本劑는 一般市販의 治淋藥과는 그撰擇에 異點을 注意하라 詳細는 別項의 『淋疾と其の療法』의 册子를 參照하라

(製法特許) パロール

無代進呈

新刊『淋疾とその療法』이라題한 四六版 四十餘頁 詳細圖解入册子를 希望하시는 분께 無料贈呈함 一名一册(朝鮮日報名記入할것)

◇パロールは全國各地有名藥店にあり。若し品切れの節は直接發賣元へ振替, 爲替又は代金引換にて御注文願へは密送いたします (前金御注文の場合は送料不要·郵券代用可)

價	藥
十五錠	一圓八十錢
三十錠	三圓五十錢
五十錠	五圓五十錢
送料 內地 十五錢 滿鮮臺 四十五錢	

元賣發 大木合名會社 東京市神田區鍛冶町大通(神田驛前) 振替東京四三二番 代表電話神田二〇番 大阪市東區安堂寺町(大手橋西詰) 振替大阪 … 電話 北濱 …

登錄商標

龍角散

主効

담기침에 (담으로향상클룩클룩하고기침이나서고통을밧는만성, 급성분께)

천식에 (그르렁거리고숨이갑부며병이오래끌려쪽빵하세고가선분들에게)

咳嗽頻發 (기침이잣고밤잠못이루며도쇠약필과對談하기에도고통이선분께)

肺病기침 (肺病, 肺炎 등으로생기는바튼기침 一切에도特効합니다)

感氣기침 (류행성감기로생기는기침, 편선으로이러니는기침等一切에도)

혈담에 (담에서냄새나고피석기는분은 계속하야복용하시면특효가잇습)

백일해 (어린애기들의기침, 그중에서도특히백일해는화근을업새십시요)

홍역기침 (홍역은어린애들의생명을좌우하는것이오니특히이점에는특효함)

●맛이향기롭고먹기조흐며●절대로부작용이업고●胃腸에害될念慮가업습니다。

二日半分	二十錢
四日分	三十錢
八日分	五十錢
十八日分	一圓
四十日分	二圓
六十五日分	三圓

東京市神田區豊島町 本舖 株式會社 藤井得三郞商店 振替東京九一番 電話浪花(67)〇〇九〇 一二〇〇

▼全鮮各藥店에서팝니다▲

D11—6

담기침 천식

靈藥龍角散의全身的治療

映畵名優모ー리스슈바리에의『咳』

그理由는 龍角散에는 最近에와서야비로소떼드는호루몬劑가適用加味되여잇는까닭으로日本서는第一오래적부터잇는唯一無二한가장進步된담기침靈藥에올시다。

肺炎으로變症됨을防止하는作用이잇습으로龍角散을服用하시고담기침천식을治療하신분은全身的으로回復되게되는故로肺炎肋膜炎肺結核等으로變症되기쉬운것이나그런일이업도록미리防止하게되는것이올시다

日本 最古의 호루몬 適用 劑로서의 龍角散

…는 …것이 … 만안니라 … 지며 …全身에 … 氣가떠도는 … 생기게됩니다

創作月評 作品의重量과人間愛

● 朴英熙

◇ 韓雪野氏의「귀」은 그 形式에 잇서서 氏의 近作中 가장 整齊된 結構와 暢達한 [illegible] 하고싶다. 말과 文章이 [illegible] 描寫는 그만큼 氏의 創作에 [illegible]을 表明하는것이라고 하겟다. 氏의 作品을 읽을때는 흔히 散漫한 [illegible] 無氣力한데가 잇서서 [illegible] 이 作品에는 그 無氣力한것이 만히 업서젓고 [illegible] 또한 注目할 點이다.

그다음에는 作者의 主觀이 濃厚하다. 그동안의 氏의 作品에서 印象바든바는 흔히 貧寒한 生活의 社會的 雰圍中에서 어름어름하고 明瞭하지못한 態度를 보인것도 잇서서, 評者의 印象을 [illegible] 한것도 잇섯스나 이 作品은 作者의 人生觀이 濃厚히 드러나서 [illegible] 것을 補充한듯하다.

「귀」는 母性愛의것[illegible]「오직 한개의 모성으로서 세상과 차워 나가는것이 나의 가장 가까운 것이다」라는것을 人間의 [illegible] 實際에서, 憐憫과 悲哀와 憤怒中에서 描寫되엿다.

◇ [illegible]氏의것은 氏의 作品中에서 佳作이라 안할수업다. 本來 氏는 多作하는 作家가아니 [illegible] 作品의 重量[illegible] 一[illegible]

◇ 韓曉氏의「人間이기 때문에」는 氏의 作品으로서 나의 처음 읽은 作品이다. 처음 읽기 시작할때는 아모러한 興味도 업섯다. 그러나 읽을수록 나는 好奇心과 期待를 갓게 되엿다. 好奇心과 期待라는것은 이 作品의 形式에서 차즈려는것이 아니라 그 內容에서 차즈려고 하엿다. 이 作品을 먼저 形式에 잇서서 觀察한다면 그곳에는 語彙, 文章, 樣式等 不充分한 데가 만코 아프로 만흔 努力이 必要할것이다. 이 作品은 普通 다른 作品들과 가티 生活의 一面을 如實히 表現하려는 技術的世界를 無視한 그反面에 氏는 [illegible] 表示하는바와가티 哲學的 思索과 人間의 高貴한 사랑(人間愛)을 表示하려는데 特히 注目된다. [illegible] 人間이 아니라 眞實한 人間, 冷情한 人間이 아니라 情熱的 人間에 [illegible] 이 作品은 그重量을 表示하엿다.

哲學的 思索이 [illegible] 結晶되여가는 이 作品에서라도 [illegible] 잇슴은 그 사랑이 이 作品의 核心인 까닭이다. 朝鮮의 作家들은 現今 만흔 苦悶을 하엿스며 [illegible] 作家들도 잇스나 대개가 그 內容에 잇서서는 生活에 對한 結論이 [illegible] 이 人間愛를 探求코자 하는 傾向이 업다고 해도 조흘만치 드므럿다.

그러나 過去에 잇서서는 偉大한 만흔 作家들이 이것을 探求한바 잇섯스니 톨스토이, 유고, 도스토이에프스키……等 諸文豪들이 잇섯다. [illegible] 勿論 氏의 作品에서 보이는바는 大海에 比한다면 滄海一粟이며 芥子씨 만한것이나 芥子씨는 적어도 그나무가 巨大해 지는것으로 有名하니 그 잎새가 茂盛하다면 이 또한 奇蹟이 아니냐! 바라기는 小說的 技術에만 [illegible] 히研究가 잇기 바란다.

―(계속)―

寒唇溫話 (一)

金尙鎔

＝고구마장수＝

째 추운 저녁이엿다. 거리를 쓸어가는 바람이 電線에 제법 [illegible]. 沐浴을 하고난 나는 몸에 못지 안케 훈훈한 마음의 餘裕를 가지고 沐浴집을 나섯다. 주머니에는 休紙 구두주걱 열쇠 나부랑이 外에 沐浴費를 내고 남은 十有餘錢의 經濟的 偉力이 潛伏해 잇섯다. [illegible]

[illegible]

漢詩

題 松 押 松 桐岡 考選

佳作一之三 姜冀秀

高標落落彼孤松
獨秀千年不改容
晋逕甘爲處士撫
秦庭恥受大夫封
炎風送韻淸逾遠
凍雪堆寒翠更濃
老去蟠枝多異狀
也知他日化成龍

科學 軍用毒瓦斯에對하야

—그性能과防護法·中毒救急法—

● 金正炯

(2)、糜爛性毒瓦斯의防護

[illegible]

(1) 避難所

[illegible]

(2) 防毒室防毒蚊帳

[illegible]

學生作品 樂器及演奏者 無用論에對하야 (中)

作者 劉漢徹

[illegible]

戲曲 晩景 (全二幕) (十一)

新春文藝二等當選作品

韓相稷

粉玉 그것은 아우님은 모를일이요 차차알레지! 여보-아우님 청이잇서 그런지 자식이지만 마즈막으로 한번이라도 더 보구시퍼 죽을려다가구려 나는 그자식이 불상해저서 못견디겟서 사내자식이 저만똑똑하면 어떠케 해서든 못살겟수만 그것은 [illegible] 이날 이때까지 그것하니를 살리겟다구 [illegible] 욕을먹고 속을 썩혀와서 (운다)

金女 그런 걱정은 괜한 걱정이예요 그래 마즈막이라시니 어떠케하시는 말이시우 난형님의 속을 몰으겟수

粉玉 내가 먼저 사내하고 이혼을 당할때 내가 가지고갓던 돈도 다 빼기고 집도 다 뺏겻지만 그자식만은 안빼기구 이때까지 길럿다우 그런것이 [illegible] 인제 보잘데 쓰잘데업는 자식이구려

金女 글세 형님처지에 무어이 걱정이 되여서 이런 [illegible]을 하시우 [illegible]

[illegible]

口頭試問 問答練習材料 (一)

(朔州公立普通學校) 金宗奎

[illegible]

【一】一般的のもの (無順序)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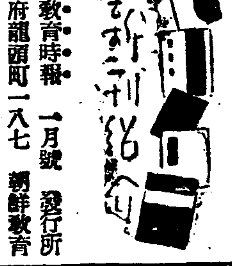
朝鮮教育時報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龍頭町一八七 朝鮮教育時報社 定價一部十錢

慶北公論 一月一日號 發行所 大邱府 [illegible] 慶北公論社 每月二回發行 定價一部二十錢

東京朝鮮新報 第三十七號 發行所 東京市 [illegible] 東京朝鮮新報社 [illegible]

湖南評論 新年號 發行所 京城府明倫町四丁目二〇六 湖南評論社 [illegible] 定價一部五錢

高麗時報 第五十八號 發行所 開城府 [illegible] 高麗時報社 [illegible] 定價 一部五錢



活性고로이도硫黃이 어재조혼가

[illegible]

◇처녀시…[illegible]
◇가정부인…[illegible]
◇식업부인…[illegible]
◇잔주름이…[illegible]
◇햇빛에…[illegible]

미안료법이발명되엿다!

살결을 본바탕부터 히고 어엽뿌게 만들어주는

美容의 醫학

[illegible]

활성상태(活性狀態)의 고로이도 硫黃을 保有한 强力美白素「레온세안크림」은 미백살균(美白殺菌)작용이 강함으로 자텍에서 아무염려업시 간단히 사용하야 단시일안에 살결이곱고 빗갈이 히게되며 여드름 죽은깨 버짐과 개기름들느든것이업서저서 어엽뻐집니다

活性고로이도유황을 특수피부淸白영양료와가티 약용화장용에성공한 레온洗顔크림은 하로에두번 三個分치로에 효과를어둘수 잇슴니다

무대진검

新日本의傑作品

질은상 거―미싱과同一

가격은船來品半價!

躍進日本!의覇者

年來顯著한發展을하고잇는 躍進日本의工業은 [illegible]

國産 蛇目재봉틀은 [illegible]

東京 本工場에서는 [illegible]

全鮮進出을目的하고 一郡에一店을標準하야 代理店을募集 하고잇사오니希望區域書申込하시면 年額及特定價格等을 詳細히回答하야드립니다

陸軍省御用 文部省御推獎
海軍省御用 各女學校採用

萬國標準型 國産蛇目미싱

京城府 萬稔ミシン商會 代理店係로

帝國ミシン會社地方代理店

[illegible]

本社 東京市日本橋區 [illegible]
大阪支社 大阪東區 [illegible]
各地支社 名古屋, 靜岡, 橫濱, 神戶, 京都, 甲府, 其他

東京 大阪 資本金百萬圓 帝國ミシン株式會社

京城南大門通一丁目九九 朝鮮總代理店 萬稔ミシン商會

蛇の目 미싱

謹賀新年

新京、吉林、煙筒山

朝鮮總督府出張所長
在滿日本大使館朝鮮課長
關東軍司令部囑託
高橋敏

土地開拓 果物各種 海陸物産 ハム製造 委託貿易
日滿洋行

新京三笠町三丁目十五
食料雜貨 日用百貨 長海産物
新興商會
任玄洙
電話(三)六八二五番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
會長 野口多內
理事 朴準秉

穀物貿易 委託販賣 兼旅館業
大同精米所
大同旅館
主 白一現
電話長三一五七五七番 電略ハ(タイ)又ハ(タ)
販賣部 旅館部 新京梅枝町四丁目二 電話三一二一二二番

新京浪速町大同報總支社
支社長 金元濟
電話三一三〇一〇番

新京天安路北胡同三〇二
朴泰晉
電話二一三三五八番

新京梅枝町四丁目二
綢緞布木 日用雜貨 海陸物産
新共商會
主 康濟衆 専務 康弘樹
電話三一五一〇四番

新京三笠町三丁目九
和洋帳簿製造 並 諸印刷
三省堂製本所
主 鄭起鍾
電話(三)三三三四番

醫師 朴忠鎭
電話三一五六〇六番

新京總領事館前
至誠堂醫院
姜東完
電話三一五六〇六番

新京東一條通七四
米穀販賣 木炭販賣 委託販賣
永新農場
穀物取扱所
李圭東
電話長三一五五七六番 電略(エイ)又ハ(エシ)

新京永樂町三丁目十一ノ三戸
土木請負 自動車業
全年壽
電三一三三五九八番

新京入船町四丁目十七
不二洋服店
李■■
電三一五六一一

滿鮮洋服出張店
金商■
電話三一二一二三番

永昌號
主 尹永作

新京南榮山鎭孤榆樹李家屯
農務契 理事 柳賢璡

朝鮮料理
日之出
任熙聖
電話二一〇六五番

新京三笠町三丁目十四番地
御料理
上海館
崔學俊
電三一六五五番

新京富士町三丁目二〇ノ二
朝鮮料理
東洋館
主 吉潤根

滿洲國吉林驛前
客室清潔 親切叮嚀 寢具完備
京城旅館
主 金田亨
電話三四九一番

滿洲國奉吉線煙筒山街
金禹奎

滿洲國奉吉線煙筒山街
白鶴來

滿洲國奉吉線煙筒山街
朝鮮料理
鳳鳴館

滿洲國奉吉線煙筒山街
綢緞布木 和洋雜貨
吉順商會
主 鄭學文

滿洲國京圖線蛟河驛前
海陸運送 穀物貿易 委託販賣
㊎丸金洋行運送部
金武漢
電話六十八番

在新京日本帝國總領事館

谷哲次

新京朝鮮人民會 評議員
姜信灝
電話三ノ三〇一〇番

新京朝鮮人民會
會長 李鍾元

滿洲中央銀行
李東濟
電話二ノ九三一六六番

新京金融會
理事 尹麟九

新京日日新聞社
洪智裕
電話三一三三〇〇番

新京放送局
姜宰馨

金泰煥

新京寬城子二道街十三戸
在新京朝鮮人農民協和會

新京白鳥會

實業部特許發明局
黃再洛

新京永樂町三丁目
國都醫院
崔永在
電三四六〇六番

京梅枝町三丁目二十八番地
綢緞布木
松島商會

公主嶺敷島町二丁目
自動車運輸 特産物取扱
宋元一
電話一八番

新京三笠町三丁目一
明月樓
電話三四八四三番

公主嶺東本町
五■子稍子 共同販賣所
電話四四六番

公主嶺市場町三丁目五番地
合資會社 公主特産商會
電話四八番

新京富士町三丁目一〇
漢城旅館
富士靴鞄店
富士樂器店
電話三ノ六九六四番

新京永樂町三丁目
金斗鉉

新京吉野町四丁目一四
姜斗煥

新京
崔久周

新京寬城子二道街一〇一
食料雜貨 日用百貨 陶器飲料
日滿商店
主 李竹軒

新京朝日通り
一活石版 一般印刷 製本帳簿
新文堂印刷所
電話二ノ二三七一

新京永樂町三丁目
元盛號
電話三ノ四六三七

新京新立屯二條胡同三二
鍼術醫院
尹時仲

新京大和通一
打綿製粉
金澤商店
主 金運聖
電話三ノ五三九四番

各種印刷 並ニ 寫眞燒付
朝日印刷所
主 鄭學周
新京入船町四ノ一九
電話三ノ二一〇七番

新京東三條通四七番
高輪商會新京支店
電話三ノ三八二六番

新京大經路四七號
高麗旅館
金昌東

新京入船町
吉源精米所
電話長三ノ二六三六番

新京梅枝町四丁目四
精米 木炭
吉川商店
吉頑潤
電話五〇三九番

新京朝日通南十七號
白米木炭 食料雜貨 建陸物産 委託販賣
三一商會
電(2)三九三四番 電略サン又ハサンイチ

新京長通路
東洋精米所
電話(2)二三三一番

新京市場仲買
丸鮮魚店
電話(3)四〇六二番

新京日本橋通り
朝鮮料理
이구요 イクヨ
電話三ノ三七七二番

新京富士町三丁目四
朝鮮館
李濟萬

新京三笠町三丁目一三
朝鮮料理
有明

新京朝鮮人民會 評議員
金浩書
電話三ノ三四四九番

新京朝鮮人民會 評議員
金根鎬

新京特別市老電燈廠街二八
李敏赫

公主嶺
三省號
日鮮精米所

吉林産業組合

吉林大東門外
滿鮮昌
電話三一四六番

吉林市大馬路
吉林金融會
職員一同

吉林朝鮮人民會

滿洲吉林市大馬路
朝日洋服店
李基洪

吉林市商埠地德興里
朝鮮料理
吉林館
電話三四三六番

吉林醫院
李龍祚

滿洲國奉吉線煙筒山北門
朝鮮料理
大滿館
主 方千一

滿洲國奉吉線煙筒山街
文東彬

滿洲國奉吉線煙筒山
禹相仲

滿洲國奉吉線煙筒山驛前
義昌旅館
主 崔敬俊

滿洲國奉吉線煙筒山驛前
飲食店
泰平春
主 林夢弼

滿洲國奉吉線煙筒山驛
天安公司支店
李元敏

滿洲國奉吉線煙筒山驛前
大昌號
主 崔雲甫

滿洲國奉吉線煙筒山街
共濟醫院
院長 吳■■

滿洲國奉吉線煙筒山街
大陸旅館
主 田武植

滿洲國奉吉線煙筒山街
德興精米所
主 柳世佑

滿洲國奉吉線煙筒山
寫眞業
鄭台文
朴漢燮
金奎昌
尹金姬

奉吉線煙筒山驛前
白成鎭

滿洲國奉吉線煙筒山
協信精米所

滿洲國奉吉線煙筒山中街
綢緞布木 和洋雜貨
韓盛商會
韓周七

滿洲國奉吉線煙筒山街
飲食店
京城屋

滿洲國奉吉線煙筒山街
金鼎浩

元東公司
主 元起龍

京圖線蛟河驛前
和洋雜貨 食料品各 海陸産物 委託販賣
同益商店
主 權泰元
電話一〇五番

京圖線蛟河驛前
穀物貿易
新興精米所
池尙龍 安炳燾
電話二五番

滿洲國京圖線蛟河驛前
精米玄米 特産貿易
三泰公司
電話一六番

京圖線蛟河驛前
蛟河産業組合
電話一一二番

滿洲國拉濱線山河屯市
興山精米所
韓承鎬

拉濱線山河屯
穀物貿易
太陽號支店
李達協

拉濱線山河屯驛前
親切叮嚀 寢具完備
拉濱旅館
主 李會魯

拉濱線新站驛前東大街
新興精米所

京圖線蛟河興隆街
朝鮮各種料理
平壤屋
主 李在萬
電話三五番

滿洲國蛟河市
綢緞布木
和信商店

京圖線蛟河驛前
泰興精米所
申健湜

京圖線蛟河驛前
精米業
安炳肅
電話二五番

滿洲國〇濱線山河屯市
飲食店
新興屋

新京梅枝町四丁目三六番地
平安商會
主 禹德淳

新京三笠町三丁目十七
朝鮮料理
銀水樓
金正子
電(3)五五二四番

新京入船町三丁目十七番地
營造測量及設計 其他一般測量
滿蒙測量社
電話三ノ五一五七

新京永樂町三ノ一九
大和寫眞館
主 尹■■
電話三ノ五一五三番

新京七馬路五
中央堂製本所
電話二ノ四四一番

新京三笠町
日新麵屋
主 金敬商
電話三ノ五四二一番

新京梅枝町三丁目十六番地
メルマ商會
金泰熤
電話三ノ四〇三九番

新京西六馬路十二號
石川公司
金曾淑

新京永樂町四丁目五番地
亞細亞タクシー
安義弘
電話(三)二五二五番

新京城內老電燈廠街二一
穀物 委託販賣
復成號
主 李柱鳳
電話呼出(三)二五一五番

九臺縣公署
梁在龍

京圖線下九臺
下九臺農務契
契長 朴哲炳
理事 尹殷柱
電話一五番

京圖線下九台驛前
中央醫院
院長 李承紹
電話十番

新京南榮山鎭孤榆樹
孤榆樹水田組合長
金基復

新京南榮山鎭孤榆樹
農務契聯合會會長
金德敬

新京南榮山鎭孤榆樹學校
會長 金麟禧

新京朝鮮人民會 評議員
李基淳
電話三ノ四六三七番

新京朝鮮人民會 評議員
陳洋根

新京南榮山鎭孤榆樹
趙家屯農務契
代表 金民■

新京南榮山鎭孤榆樹
農務契聯合會
理事 嚴淳基

新京南榮山鎭孤榆樹李家屯
農務契聯合會
監事 朴世甲

新京梅枝町四丁目六ノ二
飲食店
平壤亭

新京朝日通四七番地
朝鮮料理 食道樂
湧金樓

新京永樂町三丁目二十五番地
朝鮮料理 食道樂
京城屋

新京滿日通一四七
朝鮮料理 食道樂
浦屋德成樓

新京新立屯
朝鮮料理 食道樂
長春屋
李良碩

新京三笠町
朝鮮料理
松月樓
電話三ノ三三一番

新京三笠町三丁目二
朝鮮料理
朝日館
電話三ノ二三〇四番

新京日本橋通三八
朝鮮料理
大和殿
主 金惠淑
電話(三)五四二一番

新京富士町三丁目
朝鮮料理
滿仙閣

新京車輪會

新京朝鮮人民會 評議員
李甲龍
電話三ノ二三〇四番

朝鮮日報新京支局
支局長 洪景燮
寫眞班 尹永祥
集金員 李炳澤
集金員 金相渉
電話三一二二一二番

豐基、韶川

豐基面職員一同

豐基金融組合
理事 沈吉燮

豐基
尹明烈

慶北豐基市
豐基酒造組合

慶北豐基市
韓德履

豐基市
愛輪堂輪業社

慶北豐基市
大邱製菓所

豐基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豐基郵便所長
上田哲

豐基蔘業組合
振替口座京城一六九四七

豐基紡績組合

慶北豐基
三南醫院

慶北豐基市
綢緞布木
石一奎商店

豐基
和信連鎖店

慶北豐基市
嶺南社

慶北豐基市
慶豐旅館

永和洋服店
金明在

慶北豐基市
三豐精米所
崔熙璟

慶北豐基市
朝鮮料理
忠州屋

慶北豐基市
海陸物産 都賣散賣
大和商店
主 黃秉和

慶北豐基市
米穀 官鹽
金東鎭

協同商會

永信鑛業所
主 張炳哲

慶北豐基市
豐基乾材藥局
主 李炳台

豐基面長
張師尙

慶北豐基市
崔熙璟

慶北豐基市
黃道燁

浮石面韶川里
浮石商工株式會社

韶川金融組合
尹義重

榮州韶川市場
趙鳳仁

榮州韶川市場
權聖洙

韶川市場
徐庭煥

職員一同

韶川市場
九田彬太郎

圖們

圖們市
漢城藥房

大同生命圖們出張所
所長 張■文

圖們
共立病院
電話二〇一番

圖們
中央病院
電話一五番

滿洲國圖們郵局長
米濱鐵藏

圖們紙物商會
馬鍾善
電話五〇二

間島圖們
中央運送部
電話一六八番

間島
無盡株式會社
電話八六番

圖們
唯一釀造場

間島圖們
光成組合
電話三五〇番

■城旅館

圖們
朝鮮人民會長
金■■

圖們金融會長
劉贊彬

京圖線圖們市
中央旅館
電話三六七番

圖們間島移住
朝鮮人保導所

朝鮮料理
大同館
電話七二番

圖們
金融社
徐阮健

圖們
川合商會
電話三六番

牡丹江普通學校長

濱江省牡丹江
九吉洋行
李圭容

牡丹江
荒山鐵工所

掖河普通學校

牡丹江
日星館

牡丹江驛前
新興旅館
電話六六三番

寧安普通學校

寧安縣
大同生命寧安分所
所長 朴德洙

東京城
金融會

東京城
北滿商會

牡丹江
榮光樓

牡丹江
國際病院

圖們
書籍 文具
文武堂書店

京城版

寡婦의외獨子 大金携帶出家

【仁川】대금을휴대도주한 과부의외독자―개풍군 중서면토성동(開豐郡中西面土城洞)한지국(韓智國)(二三)은과부의 외독자로서 지난삼일 그외모친의이장을위조하야 부근전답을 개성부(開城府)양모(梁某)에게저당한후 현금이천여원을가지고 인천근방으로 무단출가하엿다는대 그모친은불량배의 꼬임에빠진것이라하야 인천서에수색원을 제출하고 방금엄중수색중이라한다

今年度工營部豫算 八百萬圓의巨額

―土木費五百萬圓、水道費三百萬圓―

都市計畫費도包含

경성부의 소화십이년도예산은 여러번 보도한바와가티 약일천삼백만원가량될 모양인데 이가운데서 사정중인 공영부(工營部)의 예산은 약팔백여만원의거액에달한다

그항목별을 보면 토목비(土木費)약오백여만원 수도비(水道費)약삼백만원으로 중요한공사는 다음과가다

▲토목공사중도시계획(都市計畫)은이십오개년의 예정으로총공비 약일억원인데 이것을 오기에눈하서 제일기 오개년공사비 이천만원으로하고 그초년도를 소화십이년도부터 착수하기로되엿다 초년도의 배당액오백만원으로 시행할 공사의 중요한것은

가、구부내의시구개수(市區改修)

나、하수의개량(下水改良)

다、신부내간선도로공사

라、구획정리

마、영등포 청량리등지의 시가계획시행

바、일정계획에 의한 시가지중설등이다

▲수도공사로 일반수도공비약일백오십만원의 시설은

가、배수간선(配水幹線)의 개체

나、시원지의확장

등과 기타현재수도의 설비개선 및 급수보급(給水普及)과 소화시설비도부 삼개년 계속사업인 수도확장공비총공비 이백칠십만원중십이년도배당액백만원등이라한다

市內七個所에 消防員所新設

―永登浦、鷺梁津、漢南町等―

市內防火完壁陣

경기도보안과(保安課)에서는 선년도에 작수실행할 여러가지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년도보다 훨신 만흔예산을 계상하야 방금사정(査定)에 돌리고잇는중인데 그중가장중요한계획은 경성시내의 소방진(消防陣)의 확대강화계획이라고한다 그계획내용인즉 작년봄 경성부가 확장되여 대경성이 형성된후새로히 편입된 구역에는 소방조(消防組)가 잇섯스나 그활동능률이 박약한 상태임으로 이것도 전부 소방원(消防員)제도로개편하고 그인원과 설비를를 대우를리고 또한일반소방원의 개선하야이에대경성의 소화진을 빈틈업시 완성하자는것이다 이계획에의하면 새로편입된 구역중 대현정(大峴町)룡강정(龍岡町)영등포(永登浦)로량진(鷺梁津)한남정(漢南町)왕십리정(往十里町)룡두정(龍頭町)에 각각일곱곳의 소방원소(消防員所)를 신설하야 결국일제히 소방원제도로맨들어서 경성소방서를 중심으로 그전시내에잇던 여섯곳의 소방서원 파출소(派出所)와 영등포의 파출소를 합하야 일곱곳의 파출소가 잇게되고 그다음시내에 여섯곳의 출장소(出張所)가잇게되고 그미테 그전시내에여섯곳 새로편입된구역에일곱곳 한개씩 열세곳의소방원소(消防員所)가 잇게된다 한소방원소에는 부장한명과 소방원 삼십명이 배치되고 각출장소에는 두대내지 한대의 소방자동차가 설비되여 항상 긴장된 대기의 자세를가지고잇서화재의 경성을 빈틈업시 직혀나가리라고한다

府西部出張所 四月부터新設

三十個町의行政事務를管割

경성부에서는 오는 사월일일부터 서부(西部)에도 부청출장소를 설치하기로 되엿다 서부방면은 대부분 룡산출장소 관할로되여잇섯스나 그거리가 멀어서 주민의불편이만흔터이므로 구룡강면(龍江面)전구역과 구연희면(延禧面)의 대부분약삼십개정(町)의 행정사무를 관할시키기로되엿는데 이출장소설치안은 부회(府會)의 결의를 어더사월부터 실시할터이라한다

開城强盜에게 懲役八年求刑

작년시월 경긔도개풍군령남면용흥동(開豐郡嶺南面龍興洞)근처에서 개성부대평정(大平町)구십륙번지 전매국연초배급원(配給員)유인식(兪仁植)을 강도의목적으로 습격하엿다가 그가강경히대항하는바람에 돈한푼도 뺏지못하고 그대로 어데로 자최를감춘것을 비롯하여 십일월이일에는 개성부고려정(高麗町)칠백오십번지 라희찬(羅熙燦)의집에침입하야 식도로 주인을협박하고 돈을강청하다가 돈이업다고하매 구두두켜레와 우산한개를훔처간외에 작년사월에는 개풍군봉서면심천리(深川里) 부근에서 열대 여섯살된 어떤 소년이 타고가는 자전거 한대를 강탈한 개성부경정(京町)이백 사십이번지 장수창(張壽昌)(二○)에관한 강도살인등 피고사건공판은 십구일、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주심 주견(酒見)검사관여 아래열리여 재판장의 간단한 사실심리가 잇슨다음 검사로부터 징역팔년구형이잇섯는데 언도는 오는이십륙일에 내리기로되엿다

本町署管內劇場街 풍성한正初興行

十五日間入場者十五萬

시내본정서관내에잇는 영화상설관과 연예관등의 일일부터 십오일까지의입장자를보면 이만팔천여명의 입장자를가진 희락관(喜樂館)을 최고로 동서관내 팔개소극장의 총입장자수는 십오만 이천칠백 십삼인이나 되고 사만팔천칠백구십원십전이나 된다고한다 이팔개소극장가운데는 소화십일년도에개관한곳도잇스나 대체로 보아금년에는 례년에보지못하든 호성적을 나타내고잇다한다

"몽치"로戰友를亂打 些少한感情으로

【仁川】사소한 감정으로 쇠몽치로서 친우를 란타혼도케한부리한―부산부곡정(釜山府谷町)이백사번지 선부 박민호(朴敏浩)(二〇)는 지난십칠일 오후일시경 만석정(萬石町)해안에서 마친통행중에잇든 김기남(金奇男)(三○)을 쇠몽치로서 란타하야 혼도식힌후 어듸론인지 종적을감추엇다는데 피해자는 방금부근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나 생명이위독하다는데 그들은 둘도업는친구로써 얼마전 주석에서 사소한감정을 일으킨혐의로 전기와가튼 폭행을 한것이라는데 인천서에서는 방금범인을 탐색중이라한다

仁川商工協會 初役員會開會

【仁川】인천상공협회(商工協會)에서는 지난십일일창립총회를마친후 제일회역원회를 지난십팔일밤 여덟시부터 인천공회당에서 열엇다 정각에 회장주명기(朱命基)씨의 개회로 각부의부장을 선정한후의사에 들어가서 구년도밀대매출문제는 시기절박의 관계로 보류하기로되고 아시경영의 문제는 역원회에 일임하기로되엿스며 그다음에는 평의원의 증선과 간사이명을선정하엿다는데 각부장과 평의원간사등의 씨명은 좌기와갓다

◇總務部=部長洪相勳、副部長洪元杓

◇商業部=部長金泰性、副部長金相璘

◇工業部=部長金泰勳、副部長金東熏

◇增選된評議員=金弼濟、金興完、張光淳、朴相碩、朴英涉、劉龍獻

◇幹事=許仁淳、孫洛彥

梨泰院土地處分으로 二百萬圓捻出

二十萬坪에每坪十圓可量式

都市計畫費에充當

경성부 일반재원조사위원회(一般財源調査委員會)에서는 십팔일 오후두시에 부청위원실에서 회를열고 시가지계획시행에 따른 재원을차저낼 방책과더캐여 낼 여지가업는 부영채석장(採石場)의 새로 선정할것에 대한 협의를하엿는데 결국재원문제에 대해서는 리태원(梨泰院)의 공동묘지자리 약이십만평의 토지를 적당한시기를 보아서 매평에십원가량의 가격으로팔면 약이백만원이 생기게되엿다한다

運動競技

中等氷上 暖氣로開催未決

白狗滑氷俱主催

白狗滑氷俱樂部主催의 第五回全朝鮮中等學校對抗氷上選手權大會는 廿二日正午부터 漢江人道橋下에特設링크에서 擧行할 豫定인바 申請期는 今二十日까지로 迫하엿는데 이미 申請한 學校는 멀리 北쪽의 江界 英實學校를 비롯하야 咸興永生高普 新義州商業 新義州二高普 校 平壤光成高普 海州商業 徽文 新學校 中東學校 靑年會學校 京城商業學校等으로 當日의 盛況을 豫期하고잇스나 氷上關係로 萬一의 許可問題가 걸처잇스므로 今廿日까지에는 開催與否를 確定하기로되엿다 그리고 朝鮮體育會主催 綜合競技氷上選手權大會는 廿四日 正午부터 亦是 漢江링크에서 開催할 豫定인데 二十二日까지 鐘路二丁目朝鮮體育會事務所로 申請하기를 바란다하며 中等氷上大會가 氷質關係로 中止되면 따라서 今年만은 流會될 모양이다

英學校氷上部入京

氷上競技로이름놉흔 山邑江界 英實學校氷上部一行四名은 今朝鮮中等對抗氷上大會에 出戰코저 監督金成德氏引率下에 十九日朝入京하야 人事次로 本社를訪問하엿다

▲陣容=監督金成德 選手金鳳鎭 金學濟 主將金河吉 尹承杰

(寫眞은 英實學校氷上軍一行)

全朝鮮女子올림픽 氷上競技大會

廿四日淸凉里에서

朝新主催의 第十四回全朝鮮올림픽氷上競技大會는 來二十四日午前十時부터 淸凉里링크에서 열릴터인데 大會規定은 다음과갓다고한다

▲參加資格=一般女子部(女子中等學校를包含함)女子學童部(普通學校 小學校)

▲競技種目=스피-드部 五百米 千五百米 三千米 千六百米릴레(學童部)五百米 千五百米 千六百米릴레

▲피거部=스글及프리

▲申込期日=一月二十二日午後四時까지 朝鮮新聞社運動部로

氷上하키代表

今月末東京芝浦링크에서 開催되는 全日本아이스·하키-選手權大會에 出場할 朝鮮代表選手는 全朝鮮初等學校敎員으로서 編成케되어 다음과가티 八名이 決定되엿다

中島(平南)、草島(忠北)、吉原(咸北)、長岡(咸南)、酒井(忠北)、刀根(忠南)、山口(西大門)、若松(東大門)

北朝鮮氷上大會 二十三日에擧行

【咸興】咸興體育會主催의 第六回北朝鮮氷上競技大會는 氷質關係로豫定한會期를당기어서 來二十三日午後一時부터城川江링크에서 擧行하기로 決定하는同時에 申込期日도 二十二日까지라고한다

運動界集會

▲第十九回全日本中等學校蹴球選手權大會에 朝鮮代表로 初出場하야 優勝한 培材高普蹴球團一行을爲한 祝勝晩餐會는 培材同窓會主催로 今二十日午後五時半부터 同校內에서 열릴터인데 一般有志의 多數來參을 바란다하며 當日會費는一圓이라고한다

목마른사람에게 물한바아지주는것을 급수공덕(給水功德)이라고하면 넓고넓은 천지에 몸을붓칠곳이업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찰나적(刹那的)아식처를 구하여 헤매이는『보헤미안』에게나 번거러운 뭇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야 한가히 달콤한사랑을 속삭이는 청춘남녀에게나 어린딸과 귀여운아들들을 손잡고품냄새를마트며 새소래를듯고저산책하는 젊문이 늙은이에게나모든사람에게 공평하게 쉴자리를이바지하는 공원의 휴게소(休憩所)야말로 지친사람을쉬어주는공덕을 베푸는곳이라고 말할것이다 물건마다 님자가 정해잇서 엽헤에만 각가히가도 닥칠가 야단나는 이세상에 마음노코누구나 안고 쉬고 자고 할수잇는 공원의 휴게소―몸부칠곳업는 무리가 만흔이사회!이곳을 차저 모혀드는이가 만키는 흡사히물고에 송사리 몰리듯 한다고나할까? 그러나때가엄동설한으로 아모리 말하는니 시비하는 사람이업다한들 추이에게까지 똑가티쉬일곳을 주는이곳을차저 추위와함께『정사』는하려는지원자는 업는모양으로 공원의휴게소는 어느곳이나 박작박작손님이차저들든 그시절이그립다는듯이 멍하니서서 빗도보이지안는 바람만한것포옹하여주고잇슬뿐……

(사진은 장충단공원에서)

仁川體育會主催 全仁川氷上大會

來三十一日로決定

【仁川】인천의체육계를 위하야 만흔공헌이잇는 인천체육회에서는 『스케―트씨슨』을 당하야 일반적으로 빙상운동의장려를 목적으로 제일회전인천 빙상경기대회를 본보인천지국후원하에오는삼십일일 도수장(屠獸場)월편에서 개최키로되엿다는대 종목은 오백、일천오백、오천、일만미돌등의경기와 사백과 팔백의『리레』외에 각종경기가 잇스리라하며 참가금은 일인이십전씩 오는이십팔일까지라한다하며 더욱이녀자선수의 다수참가를 히망하고잇다한다

羅雲奎新作品 五夢女合評會

조선영화계에잇서 초일한 천품과꾸준한노력으로 만흔업적을 싸하온 라운규(羅雲奎)씨는 재래의제작경향을 한번바꾸어 다시한거름 더나아가고자 리태준(李泰俊)씨의 처녀작인 오몽녀(五夢女)를 칠권의토키로 제작중이라함은 이미 본보연예란에 루차보도한바어니와 지난십칠일 시사(試寫)까지끗나서 영화동호자며사람의발기아래 그작품에대한 합평회(合評會)를 아래와가티열기로되얏는데 발긔인씨명과 시일、처소는 다음과가텃다한다

時日 十九日午後五時

處所 市內茶屋町百九永樂園

發起人 安夕影 徐光霽 金正革 金幽影 [illegible] 金奎澤 洪起文

土居山洋氏 商工學校申請

부내 삼판통(三坂通)사는 토거산양(土居山洋)이라는 사람은 부내 흑석정(黑石町)에 경성상공학교(京城商工學校)를 설치하겟다고 십구일에 남(南)총독상대로 경성부학무과에 그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엿다 졸업년한은 삼년이고 과목은 전긔과(電氣科)상업과(商業科)건축과(建築科)와 야간상업과(夜間商業科)이며 입학자격은 보통학교나 심상소학교졸업자로 할터이라한다

紳士、學生賭博團

판돈만五十餘圓押收

십팔일밤 동대문서에 학생신사도박단 아홉사람이 인치되엿다 그날저녁 열시이십분경 동대문서원이 시내 명륜정(明倫町)삼정목 일백오십삼번지 아다나르사 그집방안에서 여러사람이 모혀서 화투치고잇는것을 보고 곳 현장을 림검하야 화투와 판돈 오십이원사십전을 압수하는 일편 그집주인 시내 모 학원생 리종해(李琮海)(二五)(假名)와 여덟사람을 그서에 인치하엿다고 한다 그리고 계속취조중으로 그들은 전부터 상습적으로 도박한혐의가잇다고한다

印刷器御買上の方に進呈券差上ます

創業八週年記念置時計無代進呈

品質優秀堅牢正確 絕對保證

이것일다!! 맘대로 宣傳印刷物을백일수잇다!

事務에、商戰에、敎育에、社交에、時代의要求에合致된理想的簡易한本器를推奬하여드립니다

最新形置時計定價九圓品無代進呈

製造總發賣 本店大阪 太陽商會

大阪市日本橋四丁目電停前

電話戎一五三三・(四〇)四七番 工場(天王寺)五六四四番

振替大阪二六一九八番

特約店募集

値段 葉書版五圓より 美濃倍版百圓まで

型錄印刷見本進呈

太陽式石版印刷器

謹賀新年

纛島

廣昌商會 京城府外纛島面廣壯里一七四 水上木炭 同藁穀物 柴炭其他 委託販賣 主 姜凡山

喪中欠禮 李愚明 京城府外西纛島里 東明精米所 電本五二八七番

喪中欠禮 李根夏 京城府外西纛島里

金敬用 高陽郡纛島面■■馬場里

島一精米所 京城府外西纛島里 主 李慶夏 電本(取次)二〇六七番

正友精米所 京城府外西纛島里 盧正福

鐵原

職員一同 鐵原郡農會

德元商店 鐵原邑中里 絹綢緞布木 和洋雜貨 都散賣 主 安雲鎬

職員一同 鐵原警察署

大東商會 鐵原邑 穀物貿易 精米業 新炭商 主 金應煥 電話一三五

尹德昊 鐵原邑

鮮滿貿易社 鐵原邑 穀物貿易 精米業 主 林容宜

大昌商會 金剛線東鐵原驛前 穀物貿易 肥料精米 新炭木材 委託販賣 主 楊性鎬 電話二〇一番

韓達龍 寅目面新峴里

鐵原醫院 協成醫院 救世醫院

安岳商店 主 安世榮

鐵原金曜會

上坂宇八 第二消防組組頭

趙昌九 シンガーミシン鐵原分店 主

中央水利組合

小宮山八郎 道評議員

平安洋服店

崔智淳 鐵原邑長

職員一同 鐵原公立普通學校

金海

中下商店

德成醫院 寅目面 醫生 金斗鍾

朱應台 寅目面新峴里

南相寶 寅目面新峴里

朴駿緒 畝長面中細里

奇善煥商店

辛順學 松原商店機械部 主

京城洋靴店

半島洋靴店

三光紙物舖

エス商會 李在寶

李應文 畝長面大馬里

朴允緒 畝長面中細里

朴新緒 畝長面中細里

崔琦煥 金海郡下東面長 外職員一同

金海郡下東水利組合 組合長 辛慶海 理事 小島榮治

下東水利組合評議員 金在■ 村松太郎 黃本守甲 致秀

林炳澤 下東面水安里 徐錫龍 同鳥訥里 金種泰 同禮安里 裵福守 月村酒造場 鄭秉讚 普濟醫院

金海郡下東面協議會議員 姜太瑾 金井大 金水長 尹瑨求 朴性萬 金僉得 金榮澤 崔正煥

下東面鳥訥里 鳥訥面協議員 [illegible]

金鈞培 下東面酒中里

申稀根 下東面草亭里 穀物、肥料、石油商

金鶴守 下東面草亭里 理髮館 平和堂特約店 主

池松正 下東公立普通學校 服喪中年賀欠禮

朴大來 金海下東面酒中里 喪中欠禮

金性學 金海崇善殿參奉

金慶鎭 支配人

고무靴와洋襪 輸出檢査를實施

五個所에檢査所를設置하고 補助金交附키로決定

總督府殖産局에서는 重要輸出品으로 指定된 고무靴 洋襪의輸出檢査에對하야 그改正을·期키爲하야 그輸出檢査를 實施하기로되어 그檢査를 施行하는團體에對하야 明年度四萬三千七百八十五圓의 補助金을 交附하기로되엇다 그런데 檢査所는 朝鮮內에 五個所를 設置할터로 고무靴三個所洋襪二個所에서 嚴正한檢査를施行하야 朝鮮産品의 聲價維持에 努力하기로되엇다

南朝鮮고무 同業組合創立

十三製造業者가參加

【釜山發商通】南朝鮮의 十三護謨製造業을 一丸으로하는 南朝鮮고무同業組合創立總會는 十八日午前十時 釜山商工會議所會議室에서 開催되엇는데 出席者는 釜山三和、天一、護生、大生、麗水天一、大邱、泰同、三南、群山、京城木浦、大倉고무의 慶南北、全南北四道의 當業者로서 道當局으로부터 園部技手가 出席하야 滿場一致로 設立을決定하고 檢査와 附隨事業은 釜山當業者에一任하기로하고 定款을 審議決定하얏는데 事務所는 釜山府內에 設置하고 今後 京城、平壤의고무同業組合과 同一步調로 業界의 刷新에 邁進하기로 協議하얏다

東萊郡에서 蠟石을發見

朝鮮의 蠟石은 現在 密陽郡珍島郡一帶에서 良質의것이 産出되어 主로 日本內地에移出하고잇는데 最近 또 다시 東萊[illegible]에서 蠟石이 發見되엇는바 그埋藏量도 相當하고 그産地가釜山의 近接地인만큼 交通의 便이잇다는데 中央試驗所에서 試驗한結果 耐火度도 제1-게루三四、五番으로平均하야 이만한耐火度가잇스면 相當히 有望視되는터라한다 데리런 蠟石은 坩堝 耐火煉瓦等의 耐火原料로 널리 使用되는것이다

博川郡內主要地에 正租改良叺奬設置

【博川】博川郡管內에서는 郡農會幹旋으로 正租改良叺奬를 設立하얏다한다 本郡內産物은 正租가 第一位를 占하는結果 今般正租檢査指定地로되어 正租를檢査함에 當하야 一般農民의 不便이 多大하던中 郡當局에서는 穀物檢査當局과 協議한結果 各面中央部落에 正租改良叺奬를 設立하고 郡農會의 幹旋指導로檢査를 便利케하야 一般農家의便宜를 圖謀하는 一方産業發達에 도움이되도록하고잇다한다

博川郡에서도 正租用叺奬勵

【博川】正租檢査에當하야 一般農家에서 在來使用하던『섬』은 不便이 莫大함으로 改良叺을使用하게되에 郡當局에서는 農家의便宜를 圖謀하기爲하야 製叺二千餘臺를 管內各部落에 無償配付하고 正租用製叺奬勵에 努力中이라한다

全北萩細工品 海外로續續進出

又復神戸로부터注文

【全州】全北道産業課에서는 昨年度中數回 道內各地에서 萩細工講習會를 열고 技術者를 養成하야왓는바 生産數量도 逐年增加되어 他道는 勿論멀리 海外에까지 續續 輸出되고 잇는現象인데 또다시 新年度에 神戸貿易商岡本靜治商會로부터注文의 快報가 到來하야 道當局에서는 萩細工에對하야 一層奬勵할 豫定이라고한다

金海의名産物 芦製品衰微

農家서保護奬勵要望

【金海】慶南金海의 洛東江沿岸一帶에 野生하는 芦草는 手工品原料의 唯一한 特産物인바 用途는 實로 만허서『갈바구니』農笠 芦簾 芦席等을 製作할수 잇는데 金海는 元來 朝鮮의屈指하는 芦草産地이니만큼 從來斯界에 從事하는이가 만헛고 産出額도 巨大하얏다 그러나 近年에는 洛東江一川式 河川工事完成을따라 江下流에잇는 芦田開拓事業이 進行되어 거의 畓으로 化한 關係上 逐年 減少하는 傾向에잇는바 그래도 지금에도 郡內小農家一千餘戶가 副業 或은 專業으로 從事하야 芦席만으로도 年産高六十二萬八千枚로그價格十八萬六千九百八十圓에 達한다 水田開拓도 조치마는 이種類의 製品은 可謂 地方農家의 必需品이니만치 某程度의 芦田保護와 此種手工業의 奬勵도 이제는 農家의 一大要望이 되엇다한다

元山水産製品 檢査量激減

十二月四萬個

【元山】昨年十二月中 元山水産製品檢査所에서한 製品檢査狀況을보면 合格이 三萬九千八百四十四個이고 不合格이 一千七百九十五個로서 合計가四萬一千六百二十九個다 이것을 前年同期에比하면 合格에잇서 二萬五千六百六十九個 不合格은 四千七百四十七個 計三萬九千八百十六個의 大激減을 示하얏다 即前年同期의 四割餘의 減少다 그理由는 元山灣內의 鰮獲의凶漁엿슴과 漁期가 느즌關係이라고한다

龜城羊毛加工講習

【龜城】龜城郡農會에서는 昨年부터 郡內適當한 部落에緬羊飼育奬勵를하야 오든바 比較的成績이良好하므로 大量의飼育計劃을 樹立코저 羊毛의加工을꾀하야 去八日부터 四日間 西山面大星洞 東山面 龍豐洞等緬羊飼育者 婦人等 十五名을 集合하야 大星洞에서 羊毛加工指導員을 講師로 洗毛、梳毛、紡毛、染色、手編等各科目을 講習시킨바 意外로 조흔 成績이엿다 昨年一年間 剪取된 羊毛量은六〇瓩인데 四〇瓩은 義州羊毛加工場에 販賣하야 八十圓의 代金을 엇고 殘餘의屑毛를豪家에利用식히기爲하야이번講習會를열엇든바 처음이라도 大端히 조흔 成績이 되어將來斯業에 만흔囑望과 期待를가지게 되엿다한다

漁業經費低減 施設計畫協議

漁業用燃料重油免稅廢止에 伴한 漁業經費低減施設計畫實施에 關한 協議會는 十八日午前十時半 遞信局簡保會議室에서 開催하야 總督府로부터 西本水産課長外各主任이 出席하고 各道水産組合 漁組聯合會 理事長等四十名이 出席하야 重油免稅廢止에 代身할 漁家의 經費低減方法으로 明年度부터 十個年間交附될 十二年度의 補助金五十一萬圓에 對한 施設計畫을 協議하얏는바 九日도 繼續하야 午前十時부터 開催하얏다

質疑

重複質問말고 一回一問으로 簡單明確하게

◇不變色色紙製造法

【問】 本人은 色紙를 製造코저 하는데 손机도 바르고 染料를 製造하야 물통지에 染料原色을 表示하는 色紙는 水中에 너허도 關係가업고 日光이 直射하야도 脫色되지안흐니 그不變色色紙製造法을 下敎하야주십시오 (論山一讀者)

【答】 艶付色紙는 白色洋紙上에 染料(非水溶性이면 此目的에 可함)의 酒精液과 硏蠟을 添加한것을 塗布後 光澤機라는 機械로 문질러서 光澤을 附한것이외다 詳細는 片倉健四郞著 加工紙製造法 定價十圓 東京市京橋區一ノ二 化學工業時報社取扱을 購讀하시오

日用品市況

十九日 京城市內의 雜穀、砂糖及麥粉市況은 大體다음과갓다

▲砂糖 今年은 新正月과舊正月사이가 例年에比하야 긴關係로 新正月의 大需期를 지난狀態로 今日市勢는 今日의 市場은 非常히 閑散한 狀態다

白砂糖	百斤	一三、八〇
黃砂糖	同	一三、六〇
中雙	百五十斤	一九、八〇
黑砂糖	百斤	一三、八〇
地球糖水飴		五、六〇
黃金飴		六、〇〇
角砂糖	二十五包	五、九〇
氷砂糖	五十斤	一六、五〇

으로 今月二十五日頃부터는 舊年末을 앞두고 漸次好調를 示하리라고한다

▲麥粉 은砂糖과 姉妹商品인만큼 그亦新正月과舊正月間이 例年에比하야 긴關係로 近日은 閑散을 極하고잇는狀態로 今日二十二斤當市勢는

비ー나스	六、九〇
카메리야	六、九〇
二 重	五、三〇

으로 이亦是 今月二十五日頃부터는 舊年末을앞두고 漸次好轉되리라고한다

▲雜穀 ▲大豆 滿洲大豆는 歐洲輸出不振과 大連在庫漸增으로 人氣가 軟化한데 金融業者의 警戒도 加味하야 目前一層軟化가 豫想되고 朝鮮豆도 實物이 稀貴하나 反面日本內地注文도업서 多少弱含狀態이다

龍山	石二二、七〇
連長	石二二、六〇
金汗	石二一、四〇

▲粟 大豆弱含과 當地需要不振으로 漸次軟化하야 一時의高價에서 約四十錢이 反落되엿다

奉天	百斤九、二〇
四平街	百斤九、一五

▲大麥 白麥、裸麥等에 實買가 全無하며 따라서 時勢도 不動이다

秋麥	石九、二〇
春麥	石八、二〇

▲小麥 實物이 僅少하야 時勢는 堅調이나 製粉側、麩子側에서 全部見送함으로 賣買가 閑散하며 大體로 市勢도 不變이다

沙里院	石一三、〇〇
新幕	石一三、八〇

▲胡麻 一時高價이든 滿洲胡麻도 實需激減과 上海、南京이 多少軟化함을따라 高價에서約五十錢이反落되엿다 新規材料도업서 當分保合으로 豫想된다

奉天	百斤一六、八〇
四平街	百斤一六、五〇

雙虹舞 【91】

方仁根 作 / 金奎澤 畵

强顏 (一)

봄이 도다시 왓다。사람은약속을 지키지아니하지마는 자연은 조금도 약속을 어이는때가 업다。언만변을두고 변함업시 때가되면 오고야만다。

그러나 은명에게는 괴로운봄이엇다。전에는 봄이되면 질어매꼿이만발하고 종달기가 한량업는데 그러케 회창한봄이되어도 은명의 가슴에는 어룽이 풀리지아니하엿다。그것은 망훈이그립다는것보다 밥人등에떨어지는생활난때문이엇다。한푼수입되는데업고 여러식구가 살아나가나 말로할수업시 군색하엿다。꼼작업시 굶어죽는것이엇인데정을 아는사람은 역시망훈이뿐이엇다。그래서 화비에서 절약해가지고 매월삼원식 은명에게보치는것이엿다。보내는 망훈이 괴로운것보다도 밧는 은명이 더 괴로웟다。그것으로 겨우 연명해나가자니 몹시 어려웟다。십원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지탱해 나갈수가 업섯다 그러나그 십원이 백원마칭으로 그들에게는 갑흠에 비처럼 기다려지고 그십원이 이집에 떨어져야 죽어가는 식구가 소생하는것이엿다。

은명은 오늘도 천봉을 안고 양지바른 뜰에 거닐면서 볼줄모르는 애기에게언만 꼿을 구경시키며 볼그레한 볼에 입을 맛추는것이엇다。천봉은 벌서기어다니고 방실방실 우스며 가진재롱을 다 부리기 시작하엿다。어떤때는 손을 붓잡어주면 것기도하고 제법 살도올라 커다란아이가되엇다。은명은 괴롭고 쓰라린생활중에도 이천봉이만 보면 만단서름이 살아지고 즐거워지는것이엇다。

『천봉아-!』하면『엄마』하는 소리까지 내엇다。돌이 채못되엇지만 몹시 숙성하엿다。

은명은 이귀한아들까지 업섯더면 이어렵고 외로운 살림을 어떠케하고 지냇슬가하엿다。천봉이만 아니면 벌서 어대로뒤여 나가든지 무슨 사단이잇섯슬것이라고 생각하엿다。그래서 은명은 천봉에게잇는정이란정은 쏘쏘닷다。그저 깨물고십도록이뻐서 혼자 고사리가튼 손을집경질경십어도보고 궁둥이에 얼굴을대기도하고 볼에 입을마추기도하엿다。그럴때면 천봉은간지러워서 그러는지 귀여하는줄을 알아서 그러는지 방긋방긋웃는것이엇다。그웃는것을 볼때면각원에 돌어간것갓고꼿바레서 노는것 가탓다。

『아이그 작란감이라도 요러케 잘생기나는 작란감이 세상에 어대잇슬고-!음이 귀해도 이만이야 할라고』하면서 은명은 원천하를 주어도 이 천봉이하고는 박구지못할것가탓다。그것은 보통어머니의 정이지마는 남다른환경에잇는 은명은 남다르게 아들을 사랑하엿다。그아들은 웃는것봐아니라 우는것도 이쁘고 눈 코 입 모두가 어찌그리 앙징스럽게 이쁜지 세상에제일 이쁜아이로보엿다。입속에서 나는 키귀한 젓내도 드려마시고십도록 구수하고 오줌냄새 똥냄새도 다 구수하엿다。자기의배에서 나오고 자기의살과피에서나온이 아기만 생명이 은명에게는 다시업는 보배이엿다。

『천봉아 요러케 이쁜것을 나혼자만 보는구나 너의아버지가 보면오직 귀여워할가』

이것하나가 제일유감이엇다。동내사람도 할머니도 귀여워하지만 암만해도 남이다。아버지가 마조안저야만 이위대한예술품을 감상할자격이 잇는것이오 동감이 되는것이다。그래서 혼자보기에는 아깝고도볼만스러웟다。그오묘하게 이뿐것을다른사람은 도저히 발견못할것가탓다。

『내조엽어주련』하고 천봉의할머니가 딸에게말하엿다。

『네』하고 은명은 할머니에게 업혀주고 아들을 드려다보며 『까꿍! 천봉아 까꿍!』하고 눈을 가느스름하게 치뜨며 얼려주는 것이엇다。그 이상스럽게치뜨는 눈은 어린애기를 얼리는 어머니에게서만 볼수잇는 아름다운 태도이다。

할머니는 애기를업고 이웃집으로 말을가는모양이엇다。은명은 사랑하는아들의 타발타발흔들리는 머리를 바라보면서 빙그레 우섯다。

은명은 혼저 화초바를 붉그럼이 드려다보고안젓노라니 그꼿사이에서 수심이 구름처럼피여올으는것이엇다。그근심의악마는 시시각각으로 은명을차저와서 괴롭게하는것이엇다。은명은 가벼게 한숨을휘- 내쉬엇다。

먼산의 아지랑이가 가물가물하엿다。

『이리오너라』하는 소리가 대문밧게서 들리엇다。

『누구십니까』하고 은명은 깜작놀래여 대문밧글 끼웃이 내다보앗다。

恭賀新年

海南

海南郡下公立普通學校一同

海南警察署 署長 小野虎市 外職員一同

黃山面牛項里 李桓鎔

海南面海里 閔泳旭

海南尹氏棠岳門中

北平面南倉 籾摺精米業 申宗熙

黃山面松湖里 李喜鎔

松旨面美也里 朴鏞九

開業披露 特別割引 海南和信連鎖店 主 金學羽

縣山面萬安里 高鶴雲

花山市片倉生命保險株式會社代理店 穀物、肥料、酒類、石油、發動機 正信商會 主 尹柱正

松旨面長 朴春大
門內面事務所 職員一同
花源面事務所 職員一同
北平面事務所 職員一同
花山面事務所 職員一同
縣山面事務所 職員一同
玉泉面事務所 職員一同
黃山面長 閔丙日
外職員一同

海南面長 鄭世卿
三山面長 李浩敬
馬山面長 閔庠植

海南公醫 林師寺
愛山鑛山囑托醫 林紅柱
北平三山醫院 林世旭

海南邑 徐禹鍚
縣山面 尹在觀
黃山面 金堯甲
花山面 尹祥夏

花山面 尹柱昣
縣山面 尹在述
黃山面 李培鎔
花山面 張南云
縣山面 尹在熙
黃山面 李柄浩
縣山面 尹昇鉉
馬山面 徐元明
黃川面 金臨源

右水營 金融組合長 鄭興烈
郵便所長 上野義八
面立商會
海一商會
靑木佐市
金永培

縣山面 朴孝潤
三山面 尹榕駿
縣山面 李東煥
縣山面 金永來
花山面 金鶴伊
花山面 姜聲坤

花山酒造場 羅正均
縣山酒造場 平島竹松
右水營、造場 朴太俊

南倉郵便所長 朴漢玉
利津合名會社

海南郡廳 職員一同

全南道議員 任京植

片倉生命保險株式會社 海南出張所
所長 尹在平
社員 尹又準
同 閔丙實
同 尹在本
同 崔河雲
同 尹卜鉉
同 劉三奉
同 閔庚和
同 成周伯

海南大町 大興自働車株式會社

海南本町 各種蓄音器時計 眼鏡販賣及修理 東京堂時計店 主 朴興泰

海南 高麗醫院 醫師 宋鳳海

海南郡玉泉 喪中欠禮 金泰煥

大本山大興寺 住持 甘船月

溪谷面星津里 海星酒造場 金重玉

黃山酒造場 朴台炷

海南邑 各種蓄音器 時計眼鏡 修繕販賣 正確堂時計店 主 張明學

三山酒造場 李完鎭 千珍玉 千珍文

海南榮山館 主 朴長元

海南郡黃面盤山 潤德物品販賣所

縣山面日平里 司法書士 金勝煥

全南海南松旨 內科小兒科產婦人科 韓一醫院 公醫 韓鎭觀

花山面月湖里 幸洞籾摺工場 朴南洙

松旨市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 絹緞布木 廣興商店 主 金維龍

松旨市 絹緞布木 ゴム雜貨 南一商店 主 金太周

長淵

長淵郡樂道面松竹里 鑛業 張漢基

日本生命保險株式會社 長淵支所 職員一同

長淵邑內 第一生命保險相互會社 長淵支所 支所長 智梧鳳

長淵邑內 片倉生命保險株式會社長淵出張所 所長 尹五井

長淵邑內 海西醫院 公醫 徐載寬 電話一五番

黃海道長淵邑 長淵電氣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洪性欽

長淵邑南門內 廣信齒科醫院 院長 李應卨

長淵邑 長淵齒科醫院 李昌秀 李永泰

長淵邑 長淵和信連鎖店 電話五番

長淵邑南門通 食料品 酒類 郡賣 金斗熙商店 主 金斗熙

長淵邑石里 高龍成商店

夢金浦 和洋家具 衣類 信成家具店 主 李善儀

長淵面長 宋聖鳳 外職員一同

長淵稅務署

夢金浦 回春醫院 院長 全守吉

長淵邑 廷淳自動車部 電話一八番

長淵邑 和洋中華料理 泰和樓 主 李亨秀

長淵邑 中華料理 東洋館 主 金尙鉉

長淵藝妓組合 明月心

長淵藝妓組合 韓蓮香

長淵藝妓組合 金鶴仙

長淵藝妓組合 金花心

長淵藝妓組合 尹珍珠

長淵藝妓組合 李春桃

長淵藝妓組合 高鶴仙

長淵郵便所

長淵邑內 崔丙基

長淵郡廳 李根培

長淵邑南門通 中央理髮館 主 福田忠[illegible]

長淵邑內 印刷 諸紙 文具 東亞印刷文具店 李命壽

黃海道長淵邑內 小麥粉 蕎麥粉 白米 潤豐製粉所 李德亨

長淵邑 富士屋洋服店 主 李基勳

長淵邑 麥粉 燒酎 諸油販賣 全成煥商店 電話九番

夢金浦 德生東支店 孫南仲

夢金浦 恩信商會 主 李長浩

長淵邑內 燈油 揮發油 輕油 機械油 英米商會 盧秉[illegible]

安農商會 主 崔秉瑞

黃海道長淵邑 陶器 雜貨 金物 信昌商會 主 尹斗煥

長岩邑 朝鮮旅館

長淵邑 中華料理 長樂園 主 玉孔三

長淵邑 朴鼎均

黃海道長淵邑 各種金物陶器 相信商會 朴在均

東來順 張鏡海

大田

大田府本町二丁目四六 廣告藥業合資會社 電話七五八番 振替京城二〇七二五 社員代表 金洛鉉 (前廣昌堂)

大田府本町二丁目 大東商業株式會社 大田支店

大田府本町二丁目東拓前 高級洋靴、附屬一切 待客親切、大衆料金 和信洋靴店 [illegible]山旅館 主 [illegible]

大德郡儒城面伏龍里 元容文